



“딸기 선물 받으세요” 충남 아산시에서 딸기체험 전문농장 ‘내 생애 첫 딸기’를 운영하고 있는 7년차 청년 농부 양철훈(32세)대표가 딸기를 상자에 담아 보여주고 있다. 그의 농장에서는 직접 수확한 딸기로 잼과 피자, 케이크 등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사진/이해든

연중기획 - 충남 청년농부가 간다

“우리가 미래농업의 주인공..청춘을 바칠 가치 있어”

내 생애 첫 딸기 양철훈 대표
아산시 딸기체험 전문농장 운영
“농업에는 청년이 꼭 필요해”

충남의 젊은이들이 농촌 살리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디지털 마인드와 첨단 스마트 기기로 무장하고 외면받아온 농업에 2·3차 산업과 융합해 고부가 6차 산업으로 재생산하는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촌과 어촌, 산촌 곳곳에서 패기와 열정으로 묵묵히 충남의 미래 개척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청년들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건강한 먹거리 활용한 체험 제공 수확·요리를 한 번에 6차 산업화

충남 아산시 송악면의 한적한 마을에 제법 큰 규모의 유리온실이 자리 잡고 있다.

딸기향으로 가득한 이 온실은 창업 7년 차 청년 농부 양철훈(32)씨의 일터인 ‘내 생애 첫 딸기’ 농장이다. 자동으로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고 천장까지 올라가는 높낮이가 자유로운 딸기 수확대 등 첨단설비를 갖춰 자신이 수확한 딸기로 잼과 피자, 케이크를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한다. 지난해 이곳을 찾은 체험객은 1만여 명으로, 3억5천만 원의 매출도 거둬 올리는 매출 목표를 4억 원으로 올렸다.

양 대표는 남들과 달리 일찌감치 진로를 농업으로 정했다. 고등학교 때 텃밭 가꾸기 체험을 하면서 남다른 성취감을 느낀 그는 진로를 농촌으로 택했다. 한국농수산대학교에 진학해 차근차근 창업 준비했다. 고민 끝에 그가 선택한 건 6차산업이었다.

“딸기를 직접 키워 생산하는 기쁨으로 농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1차 생산업을 기반으로 한 체험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확 체험 활동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물이 딸기여서 대중적인 사업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체험형 농업을 하기로 결정한 후 양 대표는 상권 분석에 나서 여러 후보지 가운데 아산을 선택했다. 체험형 농업의 특성상 도시와 가까운 곳을 찾다가 충청권 북쪽의 개발되는 곳 중에서 접근성과 땅값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었다.

양 대표는 2017년 영농창업자금(당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2억 원으로 땅 900평에 비닐하우스 3동을 지어 딸기 농사를 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1년 뒤 체험형 농장을 열었다.

그에게도 시련은 있었다. 2020년 여름 송악면에 25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비닐하우스가 어른 키만큼 물에 잠겼다. 비닐하우스 뼈대는 부서지고 비닐은 떠내려가 시설비의 절반 이상 손실을 봤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덮쳐 체험객들의 발길이 뜸 끊겼다. 이런 난관은 오히려 전 화위복의 기회가 됐다. 매출을 받아 튼튼한 유리온실로 체험장을 확대하고 첨단 스마트 기술까지 입혀 훨씬 쉽고 편리하게 딸기를 재배하고 체험객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탈바꿈했다.

이와 함께 ‘내 생애 첫 딸기’는 양 대표의 확실한 마케팅 철학으로 흙 하나 묻지 않는 깔끔한 환경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장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서 탈피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했어요. 실제 저희 농장은 구두를 신고 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양 대표의 계획대로 현재 ‘내 생애 첫 딸기’ 매출의 70%는 체험활동에서 나오고 있다. 농장에는 흙 내음보다 달콤한 딸기향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계속해서 농업·농촌의 미래를 함께할 그의 여정이 기대된다.

끝으로 양 대표는 “정부의 지원도 청년 농업인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도 좋아지고 있고 지구온난화로 인해 농업이 더욱 주요한 사업이 될 것”이라며 “농업은 청춘을 바칠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농업에 뛰어드는 청년들에게도 “생각한 것보다 많이 준비하고, 공부하면 쉽지는 않겠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거예요. 농업에는 청년이 꼭 필요하고 우리가 미래농업의 주인공이자 중요한 성장동력이 될 겁니다”라고 전했다.

/이해든 deun127@korea.kr

충남 내포종합병원 2026년 개원

도·명지의료재단 업무협약 체결
520개 병상 규모 전문진료센터 운영
서부권 의료 사각지대 해소 기대

충남도의 숙원 사업인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이 2026년 3월 문을 연다.

김태흠 도지사는 4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이용록 홍성군수, 최재구 예산군수와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은 내년 초 착공해 2025년 말 준공, 당초 계획보다 3년가량 빠른 2026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은 3만 4214㎡ 부지에 연면적 5만 6198㎡, 520병상(급성기 350·재활요양 175) 규모로 건립한다.

22개 진료과에 중증응급·심뇌혈관 등 전문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의료 인력은 총 857명으로, 전문의 94명, 간호사 414명, 기타 349명이다.

명지의료재단은 ▲도내 의료원과 진료 협력 및 충남 서부지역 급성기 거점병원 ▲급성기·재활만성기 환자 통합 대응을 위한 수직적 통합의료시스템 구축 ▲원격진료 및 메타버스 도입 등 디지털 헬스케어 허브 구축 등을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추진 전략으로 잡았다.

구체적으로 도는 의료시설용지 기반시설 공사와 재정 지원 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2023년까지 수립한다.

또 충남개발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의회를 구성, 사전타당성 검토,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재정적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홍성·예산군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우선 처리하는 등 행정을 적극 지원한다.

명지의료재단은 내포권역 중증 치료 중심 종합병원 건립 계획을 수립해 도에 제출하고, 부지 매입 및 건축 설계를 2023년까지 완료한다.

도와 명지의료재단은 이와 함께 2023년 말까지 이행 협약을 체결, 건축공사 착공과 재정 지원을 곧바로 이행하기로 했다.

도는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이 문을 열면 충남 서부권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향상,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내포 10만 인구 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명지의료재단은 경기도 일산 명지병원 본원(680병상)과 충북 제천 명지병원(176병상), 청풍호노인사랑병원(175병상)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일산 본원은 경기 북서부권역 최종 응급의료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이며, 심장 이식 수술이 가능한 심장센터, 중증뇌혈관센터, 간과 신장 등 장기이식센터도 가동하고 있다.

심장 이식 수술은 국내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 25개 병원만 가능하다.

<관련기사 5면>

/공공기관유치단 041-635-3381



도정 비전

힘센충남 대한민국의 힘

도정 현안과제를 강력한 추진력으로 신속히 해결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도정목표

-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
- 우리 뜻이 통하는 충남

지면안내

고향사랑 기부제 첫날부터 후끈	2면
설날연휴 가뭇민한 곳	7면
격동의 충남 100년	8면
일자리 정보	10면
문화 달력	11면



고향사랑기부제 첫 날부터 충남 사랑 '후끈'

시행 첫날 10명, 654만원 기부
서울·제주 등서 사랑 이어져
수삼, 쌀, 전통주 등 답례품도

새해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 가운데 충남 출신 출향민들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 날부터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한가득 담아 보냈다.

도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난 1일 물가상승 등 경기불황 속에서도 10명이 총 654만 원을 기부했다.

제도 시행 첫 날 연간 가능한 최대 금액인 500만 원 기부자는 1명, 100만 원 기부자 1명, 10만 원 이하 기부자는 8명으로 집계됐다.

제주도에 살고 있는 고액기부자 A씨는 "지역 청년의 수도권 유출과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고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기부를 했다"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통해 충남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B씨는 "고향에 흘



로 사시는 어머니가 더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생활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부했다"며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표했다.

답례품으로는 ▲명품 수삼세트 ▲15개 시군 쌀 꾸러미 ▲전통주 꾸러미 ▲젓갈류 꾸러미 ▲과실주 ▲감태 ▲6

쪽마늘 ▲한우세트 농산물 8종 ▲홍삼 진액(농축액) ▲머드제품 ▲계장 특산품 등 11종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적인 답례품 선정과 구체적인 기부금 활용사업 발굴 등 내실 있는 홍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재정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다.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희망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답례품(기부액의 30%·최고 150만 원)을 제공한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등 주민 복지 증진 사업에 활용한다.

온라인 고향사랑 기부는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홈페이지를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한 뒤, 기부 지자체 선택, 기부자 주소지 조회, 결제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답례품은 기부 포인트 생성을 확인하고, 기부 지자체 답례품 페이지에서 선택하면 배송받게 된다.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때에는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NH농협 지점을 찾아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면, 기탁서 및 동의서 작성, 기부금 납부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배우 강부자(논산) ▲개그맨 남희석(보령) ▲배우 박시후(부여) ▲가수 배일호(논산) ▲개그맨 안소미(보령) ▲축구선수 엄기훈(논산) ▲배우 정준호(예산) ▲가수 한여름(홍성) 등 8명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새마을공동체과 041-635-2274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 보내세요

도, 설 명절 종합대책 수립·추진
120 충남콜센터로 연휴 불편 신고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충남도는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종합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종합대책은 오는 25일까지 추진되며, 설 연휴 기간인 21일부터 24일까지는 '설 연휴 종합 상황실'을 운영한다.

귀성·귀경길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특별수송대책본부는 20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하며, 연휴 기간 각종 불편 신고는 '120충남콜센터'로 하면 된다.

도는 사고 등 발생 시 긴급상황대처 및 수송대책을 강구해 교통 편의를 높이고, 도내 여객선 선착장 및 터미널에 대해서는 명절 전 안전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5대 분야 중 경제 부문은 먼저, 물가 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명절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등 25개 품목에 대한

가격 등을 집중 관리한다.

이와 함께 설 명절 대비 '농사랑' 쇼핑몰, 직거래 장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활용해 우리 농축수산물의 소비 촉진도 활성화한다.

업체당 1억 원 이내 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재해·재난 부문은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보고·전파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비상근무조를 편성하고, 도내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도로 일제정비를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전기, 가스, 난방, 상하수도, 교통안전 등 도민 생

활 밀집분야를 특별 관리해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20일부터 25일까지는 화재 대비 특별 경계근무도 실시한다.

응급 및 방역 부문은 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해 도와 시군에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연휴기간 비상 진료기관 및 약국을 운영한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24시간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17팀 51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가동해 보건소별 병상배정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나눔 분위기 조성은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 나눔 문화 확산 및 소외계층 명절 지원, 결식아동 급식대책 등을 마련했다.

환경 부문은 환경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각종 생활민원을 접수·처리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또 터미널, 전통시장과 주요 관광지 등의 공중화장실 청결 상태도 집중 점검한다.

/자치행정과 041-635-3593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일 대전세종충남 농협본부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맹철영

김 지사, 시군에 '고향사랑 기부'

"개인 기부 모아 지역 발전을"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고향사랑 기부제 오프라인 접수 시작에 맞춰 각 시·군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2일 오전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충남세종지역본부를 찾아 김 지사 주소지를 뺀 14개 시·군에 자비로 기부금을 전달했다.

기부 금액은 1개 시·군 당 30만 원씩, 총 420만 원이다.

김 지사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의 기부를 모아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에 활용하는 제도"라며 "고향사랑 기부제와 충남을 알리면, 충남 발전을 이끄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새마을공동체과 041-635-2274

자동차 부품산업 미래차 전환 '박차'

종합지원, 부품 육성 등 7개 사업
올해 281억 원 투입 정책 발굴·추진

충남도가 미래 이동 수단(모빌리티) 기술을 선점하고 맞춤형 차량용 반도체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해 도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에 속도를 낸다.

올해 7개 사업에 281억 원을 투입해 자동차 부품기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전환을 지원하고 친환경·자율주행 소재·부품 시장에서 앞서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지원사업의 3대 중점 과제는

▲미래차 전환을 위한 연계협력 체계 강화 ▲미래차 부품 집중 육성 ▲미래 이동 수단(모빌리티) 생태계 창출 등이다.

미래차 전환을 위한 연계협력 체계 강화의 세부 사업으로는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사업 3억 5000만 원,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9억 원 등 총 12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미래차 부품 집중 육성을 위해서는 수소상용차의 신뢰·내구 품질 향상 지원을 위한 수소상용차 고도화 기반(플랫폼) 구축 25억 원, 해외 구매자 발굴·연계 등 거래선 다변화 구축을 위

한 자동차 융합부품 세계화 지원 6억 원,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 76억 원 등 3개 사업에 총 107억 원을 지원한다.

미래 이동 수단(모빌리티) 생태계 창출의 세부 사업으로는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 개발 100억 원, 차량용 반도체 전주기 지원을 위해 내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자율주행·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구축 62억 원 등 총 162억 원을 지원한다.

종합지원센터 구축 시 도내 자율주행 등 미래차(지능형 이동 수단) 산업 중심지로의 발달이 기대된다.

/산업육성과 041-635-3931

충남 남부출장소 개소...3개과 12명 배치

민원서비스·지역균형발전 추진

충남 논산·계룡·금산 등 남부지역 민원행정 서비스 불편 최소화과 지역 균형발전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충남 남부출장소가 운영에 들어갔다.

2012년 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야기되고 있는 남부권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설치했다.

금산군 진산면 진산행복누리센터에 위치한 남부출장소는 민원지원과, 국방산업협력과, 인삼약초세계화과 등 3개과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업무는 국방산업 육성과 인삼 유통 활성화 등 남부권 개발 정책 수립, 지역 현안 사업 지원 및 지역 주민 편의 시책 발굴·추진 지원 등이다.

/남부출장소 041-635-7723



탄소경제특별도 충남, 탄소중립경제 선도

도 올해 국비 9조 589억 원 확보
수소산업 육성 등 신규 사업 반영
스마트농업·탄소중립 등 중점과제

민선8기 '힘센충남'이 정부예산 9조 원 시대를 개막했다.

도는 2023년 국비 9조 589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도정 사상 최대이자 9조 원을 처음 넘어선 것이며, 전년 8조 3739억 원보다 6850억 원(8.2%) 많은 규모다.

신규 사업으로 39건을 반영시키며, 도내에 1조 7781억 원의 사업비가 새롭게 투입된다. 신규 사업을 대거 담아내며 새정부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사업을 발굴하고 도정 주요 현안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충남도는 농어업 구조와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지역 균형발전 도모, 미래먹거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한다. 도의 중점과제를 살펴본다.

농어업의 스마트 미래성장 산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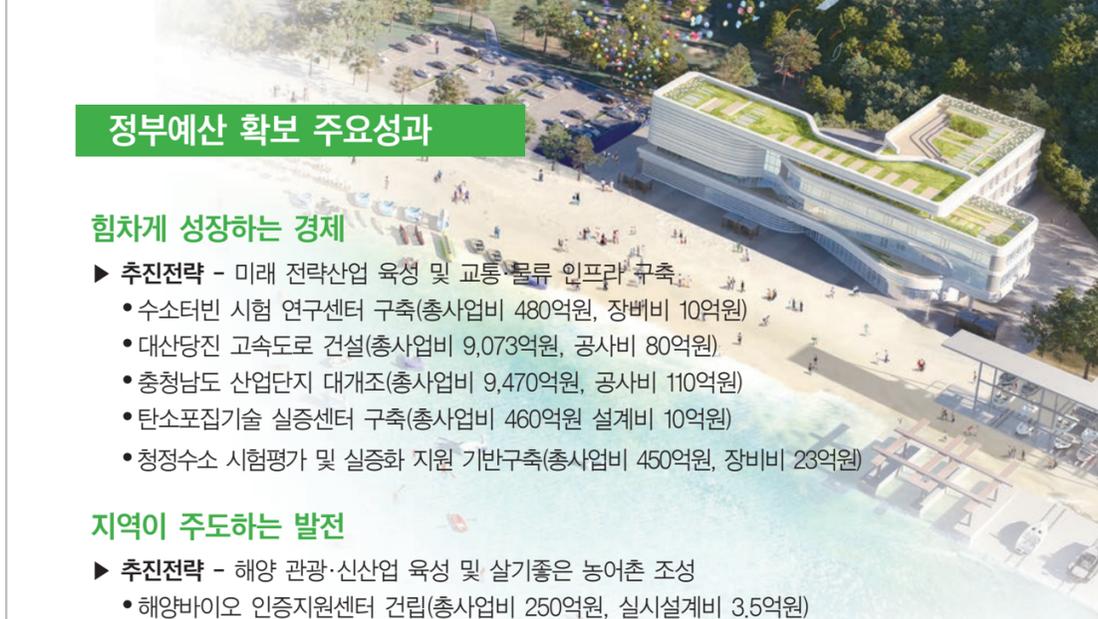
우선 농어업의 스마트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 청년 농업인 유인 및 ICT 융복합 농어업 기반을 구축하고, 농업·농촌 발전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서산 AB지구 100만 평에 청년농업인 육성단지를 조성하고, 충남형 청년창업 스마트팜 사관학교를 구축한다. 도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짓고, 내국인 근로자 대상 농작업지원단을 확대 운영한다.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베이벨리 메가시티, 해양레저 관광벨트 등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에 주력한다.

도는 경기도와 '베이벨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충남·경기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합동 추진단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경제·물류·SOC·에너지 등 분야별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고 성환 종축장은 글로벌 대기업과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유치한다. 베이벨리 메가시티는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충남 북부권과 평택·안



정부예산 확보 주요성과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 추진전략 - 미래 전략산업 육성 및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 수소터빈 시험 연구센터 구축(총사업비 480억원, 장비비 10억원)
-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총사업비 9,073억원, 공사비 80억원)
- 충청남도 산업단지 대개조(총사업비 9,470억원, 공사비 110억원)
- 탄소포집기술 실증센터 구축(총사업비 460억원 설계비 10억원)
-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 지원 기반구축(총사업비 450억원, 장비비 23억원)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 추진전략 - 해양 관광·신산업 육성 및 살기좋은 농어촌 조성

-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총사업비 250억원, 실시설계비 3.5억원)
- 블루카본 실증 지원센터 건립(총사업비 320억원, 실시설계비 10억원)
- 청남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총사업비 377억원, 기본조사비 3억원)
-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총사업비 1,577억원, 설계비 21.5억원)
-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총사업비 300억원, 기본계획수립비 5억원)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 추진전략 - 균등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도민 안전체계 구축

-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설치(총사업비 202억원, 설계비 1.5억원)
- 충남 TBN 교통방송국 설립(총사업비 276억원, 공사비등 60.6억원)
- 인공지능 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총사업비 450억원, 설계비 등 80억원)
- 소방·고성능 화학차 보강(총사업비 10.6억원, 장비구축비 5.5억원)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원(총사업비 15억원, 지원비 7.5억원)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

▶ 추진전략 - 지역 문화관광 진흥 및 건강한 체육활동 지원

- 충남 e-스포츠 경기장 건립(총사업비 150억원, 설계비 10억원 반영)
- 금강권 역사문화관광 플랫폼(총사업비 146억원, 설계비 3억원 반영)
- 동아시아 역사도시 진흥원(총사업비 360억원, 설계비 12.5억원)
- 해미 국제성지 디지털 역사체험관 (총사업비 70억원, 공사비 9억원)

성·화성·오산 등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대규모 계획이다.

충남 내포혁신도시에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을 유도하고, 흥에 공원 명품화 사업을 추진한다.

충남은 풍부한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에 집중한다. 경기 남부 해안과 충남 해안 구간을 가로림만 해양정원, 해양레포츠센터, 마리나항만 건

설, 갯벌생태계 복원 등 국제 해양레저 관광벨트를 조성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 보령시, 대명소노그룹과 원산도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시범모델 조성을 통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령해저터널 개통으로 육지와 연결된 원산도 등 5개 섬을 묶어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오는 2030년까지 민간 투자를 포함해 1조 1254억 원을 투입, 섬 특색에 맞춰 리조트, 해양레포츠센터를 짓고 3.9km 길

이의 해양 케이블카 등을 설치한다.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는 전동서핑보드, 제트스키 등 해양레포츠 체험 등이 가능한 시설로 조성한다.

新 경제산업지도 구축

도는 탄소경제특별도로서 국가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하고, 수소산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발전 기반을 구축한다.

도는 실행가능한 탄소중립 목표와 정책을 도출해 정부 역제안 사업과 시

범사업을 발굴하고,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 및 탄소포집기술 실증센터를 구축한다. 흥성 내포 첨단산단 내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해 저렴한 비용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2025년까지 세계적인 인증기관 육성이 목표다.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제조업을 고도화하고, 해양신산업을 육성한다.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물류 인프라를 확충한다. 대산~당진 고속도로는 서산시 대산을 화곡리 대산석유화학단지 인근부터 당진시 사기소동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분기점(JCT)까지 25.36km를 4차로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오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도는 이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대산항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산단지에서 고속도로 진입(서산나들목)까지 40km에 달하던 이동거리가 2km로 단축되고, 이동 시간 역시 1시간에서 1~2분 사이로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흥성부터 화성 송산까지 총 90km를 연결하는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도 추진 중이다. 2024년 개통 예정이다.

두텁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맞춤형 선별 지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쓴다. 중증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확충, 어르신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파크골프장 확대 조성, 지역시대 설립과 대학병원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도는 어르신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 파크골프장을 확대한다. 2024년까지 300억 원을 투입해 18홀 규모 파크골프장 30개를 도내 각 시군에 신설한다.

폭력피해 사회적 약자 긴급보호 강화, 학교밖 청소년 세상소통카드 확대, 자살예방프로그램 운영 등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살핀다.

이외 지역시대 설립 유지 및 대학병원 설치의 경우 전남·경북 등 대학병원 미설치 지역과 연대해 공론화 및 근거법 제정 등을 추진해 지역의 보건·의료 불균형을 해소한다.

/김정원 jwkim87@korea.kr
/예산담당관 041-635-3174

올 겨울엔 온실가스를 끄고 OFF

탄소중립을 꾸요!



18-20°C

충청남도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남기후·환경네트워크

안쓰는 중고물품 나눠 써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품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따뜻한 차 한잔, 내 컵으로 즐겨요!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으로
지구도 나도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
국내인구 10% 참가시 1,991,538그루 나무심는 효과



충남 공공기관 25 → 18개 통폐합

도 기관 경영 효율화 계획 발표
유사·중복 조정, 공공서비스 강화
통합 후 본원 소재지 내포 검토

충남도가 산하 공공기관 25개를 18개로 통폐합해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도는 1월 4일 도청 프레젠테이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는 각 기관들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해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경제·산업과 정책 연구, 교육 지원, 문화·예술·관광, 사회정책 및 서비스 분야 12개 기관을 5개로 묶어 총 25개 공공기관을 18개로 통폐합한다.

우선 경제·산업 분야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을 통합하고, 충남연구원 5개 부설센터를 이관해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시킨다.

기업 지원과 일자리 지원 기능으로 이원화 돼 있던 기관을 합해 도민 일

자리 창출과 기업 지원 활성화 시너지 효과를 올린다는 복안이다.

문화·예술·관광 분야 기관인 문화재단, 관광재단, 백제문화재단은 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한다.

평생교육 지원 기능을 수행 중인 평생교육진흥원과 장학·학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인재육성재단은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묶는다.

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 등 사회정책·서비스 분야 3개 기관은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한다.

충남연구원과 과학기술진흥원은 충남연구원으로 합해 충남 정책 싱크탱크 전문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또 충남개발공사, 테크노파크, 신용보증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역사문화연구원, 교통연수원, 충남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4개 의료원 등을 기관 내 경영 효율화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고, 기관별 맞춤형 방안을 제공한 뒤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도는 공공기관 인사와 복리후생제도 정비 방안도 내놨다.



채용·승진·평정은 기본적으로 통합 흡수기관의 체계를 기본으로 하되, 일반 원칙에 따른 표준안을 마련키로 했다.

직군과 직급은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임금은 수준이 가장

높은 기관을 기준으로 설계해 직원들의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통합 기관의 소재지는 내포신도시를 본원 소재지로 검토한다. 기관이 이전할 경우 근무자 이주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정부 및 타 시도 청사 이전 이

주비 지원 사례를 고려해 금액과 기간, 대상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출자·출연기관 대표 및 임원 임기를 도지사와 일치시키는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기획조정실 041-635-3173



내포행정동우회 총흔담 참배

충청남도 내포행정동우회(회장 박일신)는 지난 3일 충남보훈공원 총흔담을 참배하고, 신년 떡국 인사회를 가졌다. 충청남도 내포행정동우회는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거주하는 충남도청 퇴직 공무원 50여 명으로 구성된 친목동우회로, 2월 정식 출범 예정이다.

/내포행정동우회 제공

충남 작가 150명 참여한 대형전시

CN갤러리 첫 번째 단체전

1월 17일~2월 15일 개최

충남문화재단은 충남 작가 150명이 참여한 CN갤러리의 첫 번째 단체전 '개관기념전Ⅱ <상리공생展 : 1월, 1인, 1호, 1점>'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오는 1월 17일부터 2월 15일까지 '상리공생: 1월, 1인, 1호, 1점'을 주제로 서울 종로구 소격동에 위치한 CN갤러리에서 진행된다.

이번 개관기념전은 수도권과 지역, 공공과 개인, 예술과 비예술, 상업미

술과 공공미술의 공생 관계를 함께 생각해보는 전시 프로젝트로, 서울과 충남 사이의 물리적 간극을 예술로 잇고 북촌과 충남예술인들의 낮가림을 관계의 미학으로 극복하게 하려는 미술적 시도로서 추진한다.

재단은 CN갤러리 개관을 기념하고 지역작가들이 처음으로 참여하는 대형 단체전인 만큼 1호 작품을 제출한 신청자 150명 전원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했다.

2층 전시장에서는 직접 1호 크기의 작품을 만들어 보며 예술적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도록 기획·구성했다.

/충남문화재단 041-630-2912

도정계시판

계룡건설, 이웃돕기 성금 전달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29일 계룡건설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1억 원을 기탁 받았다.

도는 기탁 받은 성금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해 다양한 복지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승찬 계룡건설 사장은 "앞으로도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과 041-635-4254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오는 31일까지 '2023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어가당 구매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연 1%의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해면, 내수면)이며, 지원 기간은 대상에 따라 2년 또는 3년이다.

신청 대상은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

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배합사료(EP, SEP)를 사용하는 어업경영체다.

신청은 도 수산자원연구소에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 도 수산자원연구소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수산자원연구소 041-635-7863

충남도립대 평생교육사업 공모

충남도립대학교는 오는 27일까지 지역민에게 양질의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 및 강사를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직업능력 ▲인문교양 ▲외국어 ▲생활체육 ▲문화예술 등 5개 영역이다.

모집 규모는 5개 영역 비율을 고려해 전체 25~30개 프로그램(대학본원 5~6개, 내포분원 20~25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평생교육원은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프로그램을 확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립대학교 평

생교육원(041-635-6670~3) 또는 홈페이지(<https://lei.cnsu.ac.kr/>)를 참고하면 된다.

/충남도립대 041-635-6672



충남도서관 AI 로봇 방역관리

충남도서관은 인공지능과 첨단 방역 기능을 탑재한 '인공지능(AI) 방역 로봇(사진)'을 도입·운영한다.

인공지능 방역 로봇은 스스로 주행하면서 기존 분무 방식이 아닌 인체에 무해한 플라즈마 방식으로, 실내공기 중 세균과 바이러스를 살균한다.

또 공기 청정 해파필터로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정화하고, 자외선(UV) 살균기능을 갖추고 있다.

/충남도서관 041-635-8022

도내 보훈단체장과 소통의 장 마련

충남도가 새해를 맞아 보훈단체의 건의 사항과 어려움을 듣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태흠 지사는 10일 예산에서 충남도지부 보훈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훈기 광복회 충남지부장, 정진동 상이군경회 충남지부장, 김미순 전몰군경미망인회 충남지부장, 송일권 무공수훈자회 충남지부장, 신현규 고엽제전우회 충남지부장, 박종원 특수임무유공자회 충남지부장, 손봉진 6.25참전유공자회 충남지부장, 송길운 월남참전전자회 충남지부장 등 8개 단체장이 참석했다.

도는 보훈단체의 현안 및 정책 방향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예우 강화 지원 등을 검토한다.

/경로보훈과 041-635-4219

맞춤형 어업인 전문교육 접수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오는 31일까지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전문교육 신청을 받는다.

교육대상은 도내 어촌계 및 여성어업인 단체 등 수산 관련 단체와 수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및 유통, 귀어(어촌정착)지원 등 해양수산 전 분야로 교육비는 무료로 진행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수산관련 단체는 신청서를 작성해 도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관리과(보령시 대천항 중앙길 21), 태안사무소(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108)로 방문하거나 팩스(수산관리과 041-635-7995, 태안사무소 041-635-7997)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도 수산자원연구소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도 수산자원연구소 041-635-7857

충남도정

발행인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창간 1990년 12월 15일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https://blog.naver.com/chungnamdojung>

편집인 충청남도 공보관
발행주기 매월 5. 15. 25일
안내 041-635-2035



계묘년 시무식 열고 충남 발전 다짐 충남도는 1월 2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계묘년 새해를 여는 시무식을 가졌다. 이날 시무식은 그동안 코로나로 전직원이 모이지 못했던 기쁘고 다르게 김태홍 도지사(가운데)와 이필영 행정부지사, 전형식 정무부지사를 비롯 전직원이 참여해 새해를 맞았다. 시무식은 신년인사, 떡 케이크 커팅, 청렴 서약식, 청렴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운영지원과 041-635-3503

충남 수출 2년 연속 1000억 달러 돌파

무역수지 흑자 '전국 1위' 기업
글로벌 경제 한파 속 대기록

충남도 내 수출액이 2년 연속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도내 기업들의 2022년 11월 말까지 수출액은 총 1003억 41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도(1260억 달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이자, 지난해 같은 기간 939억 7800만 달러에 비해 6.8% 증가한 규모다. 품목별 수출액은 ▲반도체 420억 6700만 달러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121억 7500만 달러 ▲컴퓨터 100억 8800만 달러 ▲석유제품 95억 7300만

달러 ▲합성수지 33억 3600만 달러 ▲석유화학 중간 원료 24억 3400만 달러 ▲기초유분 17억 8000만 달러 ▲건설지 및 축전지 16억 6500만 달러 ▲정밀화학 원료 16억 3000만 달러 ▲자동차 부품 15억 9600만 달러 등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반도체가 1.9% 감소했으나,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13.2%, 컴퓨터 3.9%, 석유제품 50.6%, 합성수지 36.4% 증가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최근 들어 반도체와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컴퓨터 등 충남 주력 품목 수출이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액은 중국이 제로 코로나 여파로 전년 대비 5.1% 감소하며

230억 5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은 212억 9000만 달러 19.9% 증가, 미국 121억 4800만 달러 19% 증가, 홍콩 119억 9500만 달러 26.3% 감소, 대만 68억 5300만 달러 12.8% 증가, 싱가포르 27억 7500만 달러 50.5% 증가, 일본 24억 3100만 달러 5.3% 감소, 인도 24억 1900만 달러 28.3% 증가를 각각 보였다. 특히 무역수지 흑자는 535억 800만 달러로 전국 1위를 유지했다. 한편 도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자율선택형 수출기반 활용 ▲수출입보험료 및 신용조사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등 28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제통상과 041-635-3357

충남 농어촌발전 대상에 강도석 씨

제30회 농어촌발전상 시상식
작목 등 3개 부문 12명 수상

스마트팜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미래농업인 양성에 힘쓴 강도석(부여군·사진)씨가 충남 농어촌발전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도는 12월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30회 농어촌발전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어촌발전상은 도내 농어업 분야 최고 영예의 상으로, 매년 현장에서 곳곳하게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해 땀 흘려온 일꾼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작목·시책·지원기관 분야에서 농어촌발전 대상 강도석(48·부여군) 씨와 각 부문별 1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농어촌발전 대상을 수상한 강도석 씨는 부여에서는 최초로 3300㎡의 스마트팜에 참채소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데 이어 업체류 생산에 적합한 스마트팜을 직접 설계, 시공 및 실증재



배를 통해 업체류 규격 스마트팜 기술 개발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대학생, 후계농 등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에게 생산현장을 체험하게 하고, 스마트기술과 생산·유통 교육을 통해 미래 농업인력 양성에 힘써 온 부분도 높게 평가됐다. 작목 부문에서는 ▲식량작물 서천군 박병구(쌀) ▲원예특작 예산군 신만영(국화), 태안군 홍민정(삼채소) ▲임업 부여군 김대중(밤) ▲수산 논산시 강정현(수산자원조성) 씨가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시책 부문은 ▲친환경농업 태안군 김정근(유기농산물), 부여군 이관호(무농약 쌀) ▲로컬푸드 동천안농협 조덕현 ▲축산 구항농협 황규진씨가 수상했다. 지원기관은 논산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이 선정됐다. /농업정책과 041-635-4011

축구장 4700개 규모 '꿀벌 먹이 숲' 조성

최근 5년간 848만 9000그루 식재
꿀벌 실종 사태 선제 대응 '주목'

충남도가 최근 5년 동안 축구장 4700개가 넘는 크기의 숲에 800만 그루 이상의 밀원수를 식재했다. 도는 밀원숲(특화림) 조성·육성 1단계(2018~2022년) 사업을 마무리했다. 밀원숲 조성은 밀원 감소와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양봉농가를 지원하고, 꿀벌에 의한 화분 매개 등 자연생태계 건전성 유지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밀원수는 꿀벌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나무다. 도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1단계 5

년 동안 총 3379만 9000㎡의 밀원숲을 조성했다. 이는 축구장(7140㎡) 4733개 크기로, 당초 목표로 잡은 2579만㎡보다 31% 넓은 규모다. 연도별 식재 나무 수는 ▲2018년 133만 9700그루 ▲2019년 190만 8000그루 ▲2020년 190만 200그루 ▲2021년 180만 4700그루 ▲올해 153만 6500그루 등이다. 수종별로는 ▲백합나무 1212만㎡ 338만 4500그루 ▲헛개나무 802만 4000㎡ 228만 6900그루 ▲옻나무 499만 3000㎡ 87만 4400그루 ▲밤나무 190만 7000㎡ 8만 5900그루 등이다. 2단계(2023~2027년)에는 2905만㎡의 밀원숲 조성을 추진한다.



백합나무가 식재된 밀원숲. 도 관계자는 "꿀벌 실종 사태 해결의 실마리 중 하나인 밀원수 식재를 일찌감치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채밀 수종 다양화로 양봉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경제림 육성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자원과 041-635-4507

제11대 충남TP 원장에 서규석 씨

"산업정책·기업 지원 힘쓸 것"

충남테크노파크 제11대 원장에 서규석(63·사진) 전 한국폴리텍IV대학 대전캠퍼스 학장을 임명했다. 서 원장은 충남 당진 출신으로 국회의원사무처 정책연구원, 국민대 겸임교수 등을 거친 정책 연구·분석 관련 전문가이며, 풍부한 산·학·연 인망을 갖춰 민선 8기 도의 현안 과제 추진



에 적임자라는 평을 받았다. 임용 기간은 전임 원장의 잔여 임기인 24년 2월 5일까지다. 서 원장은 "충남 발전을 위해 지역 산업 정책 지원 및 기업 지원 업무에 중점을 두고 현장에서 해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산업육성과 041-635-3926

하트 뽐뽐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2024년 초 착공 ▶ 2025년 말 준공

당초 계획보다 3년가량 빠른 2026년 3월 개원

힘센충남 대한민국의 힘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추진 전략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서부지역 급성기 거점병원

- + 도내 의료원과 진료 협력
- + 충남 서부지역 급성기 거점병원 급성기 재활만성기 환자 통합 대응을 위한
- + 수직적 통합의료시스템 구축
- 원격진료 및 메타버스 도입 등
- + 디지털 헬스케어 허브 구축

힘센충남 대한민국의 힘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은

3만 4214㎡ 부지 연면적 5만 6198㎡ 520병상 규모 (급성기 350, 재활요양 175)

우려 3년이나 앞당겼다고

힘센충남 대한민국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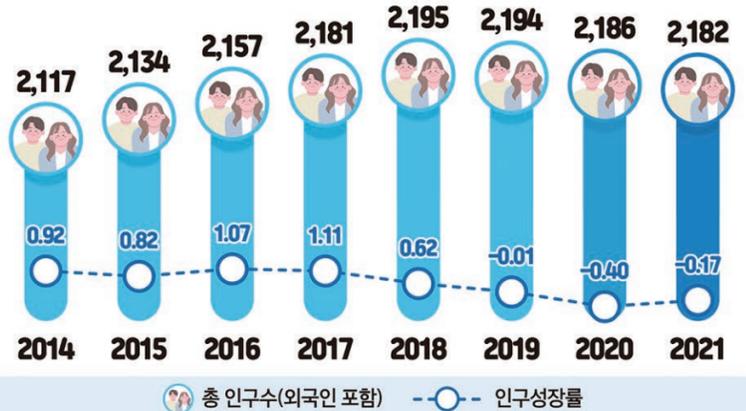
한눈에 보는 2022 충남 사회지표

지난 1년간 우리 도민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 ✓ 충남 사회지표는 도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상태를 측정하여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통계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합니다. (국가승인통계 제 213009호)
 - ✓ 충남 사회지표는 충남지역 15,000가구(만 15세 이상 가구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타 기관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합니다. (사회조사 기간: 2022.8.12.~9.4.)
- *10점 만점 평균값은 0점에 가까울수록 부정, 10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임

1 인구

인구구조의 변화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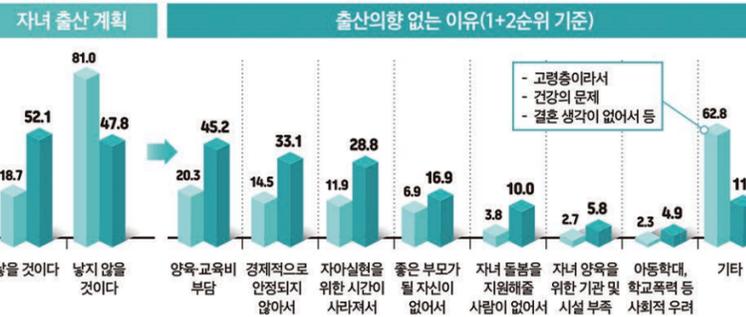


연령구조의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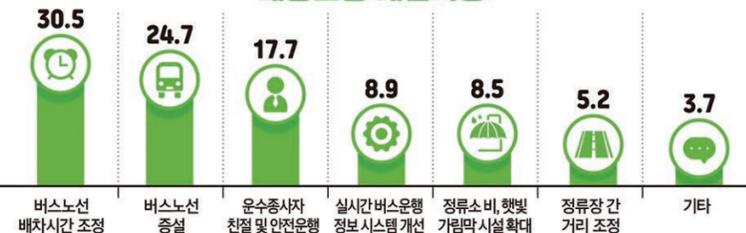
2 가족 | 가족관계 만족도는 7.81점으로 전년(7.79) 대비 상승↑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고(8.35) 배우자의 형제자매 만족도 가장 낮음(7.24)

자녀출산의향 없는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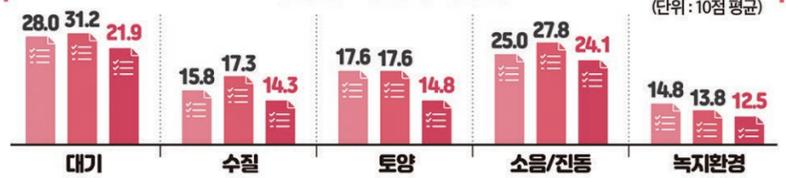
3 주거·교통 |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는 5.51점으로 전년(5.43점) 대비 상승↑

대중교통 개선사항



4 환경 | 전반적인 환경 체감도(좋아지고 있다는 인식)는 6.03점으로 전년(5.81) 대비 상승↑

환경 '나쁘다' 응답 (단위: 10점 평균)



전반적 환경체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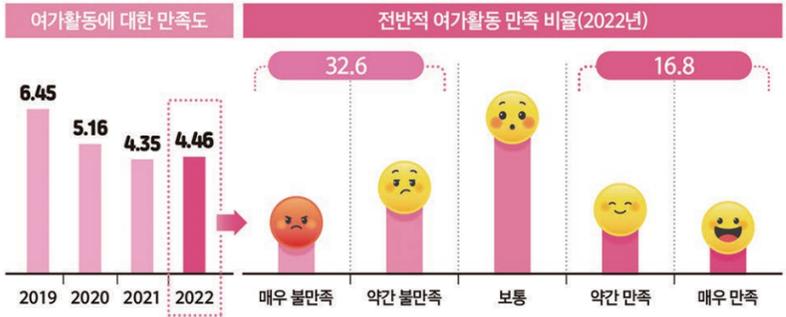
5 안전 | 전반적 사회 안전 인식도는 5.86점으로 작년(5.73) 대비 상승↑

전반적 사회 안전 인식도 (단위: 10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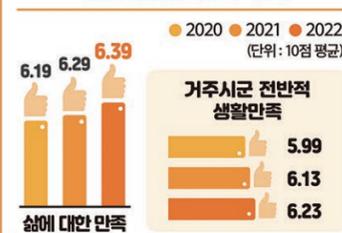
6 여가와 문화 | 전반적인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4.46점으로 전년(4.35) 대비 상승↑

전반적인 여가활동 (단위: 10점 평균)



7 사회통합 | 삶에 대한 만족감은 지속 상승↑ '행복' 경험 증가↑, '근심걱정', '우울'은 감소↓

삶에 대한 만족감



정서경험





'설날에 가볼 만한 충남 명소'

힘차게 뛰어 오르는 토끼처럼 희망차게 시작한 계묘년 새해 설날 연휴 내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눌 장소를 안내합니다.



01.16.~01.22.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짐.(주평균기온) 평년(-1.7~0.1℃)보다 낮을 확률 50%.(주강수량) 평년(3.7~8.8mm)과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이 각각 40%.

01.23.~0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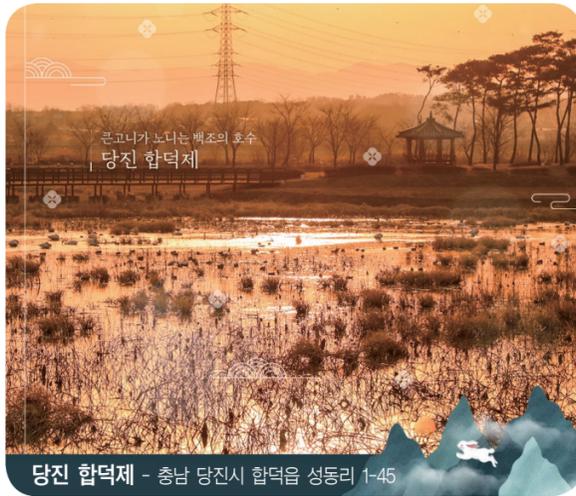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에 일시적으로 찬 공기의 영향을 받음.(주평균기온) 평년(-2.4~-0.2℃)과 비슷할 확률이 50%.(주강수량) 평년(1.2~4.8mm)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 /장기날씨 예보-기상청 날씨누리



삼화/맹주석



서산 해미읍성 - 충남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당진 합덕제 - 충남 당진시 합덕읍 성동리 1-45



아산 외암민속마을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민속길5



홍성 홍주성 역사공원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0-1



예산 에당호 느린 호수길 - 충남 예산군 응봉면



공주 갑사 - 충남 공주시 계룡면 갑사로 567-3



예산 에당호 느린 호수길 - 충남 예산군 응봉면



부여 백제문화단지 -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논산 돈암서원 -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임3길 26-14



‘선화당(宣化堂)’ 전경. 선화당은 조선시대 충청도 관찰사가 공무를 집행하던 곳이다. 원래 태조 4년(1395)에 충주에 설치되었으나 선조 35년(1602)에 공주로 옮겨와 충청도 전체를 관장하는 지방행정의 중심지가 되었다. 『여지도서』에는 선화당을 비롯하여 50여 채의 건물과 칸수를 기록하고 있으나, 지금은 선화당과 포정사 및 삼문, 부속건물 1채만 남아있다. 지금의 선화당 건물은 순조 33년(1833)에 지은 것으로, 원래는 공주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자리에 있었으나 1932년 현재의 위치로 옮겨지었다.

/문화재청

일본에 충성... 독립운동 막은 거물 친일파

격동의 충남 100년

4) 한일 강제병합후 첫 충남도장관 朴重陽



1910년 13개도 재편, 관찰사 제도 폐지
박중양, 충남도장관 취임 일장기 계양
"의병은 불량한 무리, 독립운동 대처"

지금한 검은 제복과 모자를 쓰고 취임식에 참석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특별히 치안을 강조했는데 그 무렵 곳곳에서 한일 강제병합에 항거하는 의병들이 봉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의병을 가리켜 ‘불량한 무리’ ‘초적(草賊)’이라고 지칭하면서 ‘치안유지를 확실히 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찰권까지 가지고 있던 도장관으로서 앞으로 독립운동이나 항일 의병활동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취임식의 분위기도 그래서 찬바람이 불었다.

취임 후 박중양은 도내 군수회의를 소집했는데 그때는 충남의 군이 33개나 되어 선화당 회의실이 군수들로 꽉 찼다. 이 자리에서도 박중양은 치안을 강조했고 관내 불순세력의 동태를 잘 파악하라고 했다. 불순세력이란 의병이나 독립운동가들을 가르키는 것이었다.

당시 도장관을 부를 때는 ‘각하’라고 했는데 회의 끝에 이종열이라고 하는 임천군수가 ‘각하! 한 말씀 건의 드리겠습니다’하고 발언을 신청했다. 도장관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말해도 좋다고 했다. 그러자 임천군수는 토지 측량이 자주 되풀이 되어 농민들이 불안해 한다며 이를 중단해 달라고 건의했다. 토지 측량은 일제가 식량수탈을 위해 강력히 추진하던 것. 이 건의를 받은 박중양 도장관은 얼굴에 노기를 띠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임천군수 같은 불충한 사람은 필요 없소!’하며 퇴장해 버렸다. 그 후 며칠도 못가 임천군수는 파직되었고 후임 군수로 충청도 갑부 김갑순을 임명했다. 이때부터 김갑순의 무대가 펼쳐지는 것이다.

한일 강제병합 후 첫 도장관이 된 박중양은 큰 칼을 옆에 차고 카이젤 콧수염을 쓰다듬으며 도청을 위압적으로 끌고 갔다. 감히 그 앞에서는 비위에 거슬리는 말을 하지 못했다.

우선 그가 착수한 것은 군청 소재지를 조정하는 것. 은진에 있던 은진 군청을 강경으로, 그리고 연기군 남면에 있던 연기군청을 조치원으로 옮기는 것부터 착수했다.

은진군은 지금 부여 은진면과 강경읍 그리고 연무읍을 관할하고 있었는데 일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강경으로 군청을 옮기겠다는 것. 명분은 앞으로 호남선 철도가 생기면 강경역이 큰 역할을 하게 되고 상거래가 활발하다는 것이다. 1910년 12월, 추운 날씨에 눈을 맞으며 은진에 거주하는 김익호, 강영만 등이 주민을 대표하여 공주로 박중양 도장관을 찾아가 군청 이전을 반대하는 건의를 했다. 그러나 이 때도 큰 칼을 차고 나타난 박중양은 오히려 주민 대표 중에 상투머리를 한 사람이 있음을 보고 ‘아직도 단발령에 따라 상투를 자르지 않은 사람들과는 대화를 않겠소!’하고는 자리를 박차고 퇴장해 버렸다. 그 시절, 그렇게 무모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도장관이 칼을 차고 거들먹거리며 도민들 앞에 나타난다는 사실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



1910년대 충남도청 정문으로 사용된 금남루와 도청 청사.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박중양은 1874년 경기도 양주에서 출생하였다. 본관은 밀양으로 조선 초대통감 이토히로부미의 수양아들이다. 1897년에 관비장학생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1900년에 도쿄 아오야마(青山)학원 중학부를 졸업하고, 도쿄 경시청에서 경찰제도연구생으로 경찰제도와 감옥제도를 연구 실습했다. 1903년에는 도쿄부기학교에서 은행 업무를 익힌 후 졸업했다. 1906년 군부 군기창 기사가 되어 의친왕이 일본을 방문할 때 통역 수행원으로 일본을 갔다온 후 대구군수 겸 경상북도 관찰사 서리가 되었다. 1910년부터 1915년까지 충청남도 장관을 거쳤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이를 진압할 목적으로 대구에서 자제단을 조직하고 단장을 맡았다. 1935년판 『조선공로자명감(朝鮮功勞者銘鑑)』에 의하면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식민통치 25년간 최고의 공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자료조사/이상현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역사박물관 선임연구원

1910년 한일 강제병합을 강행한 일본은 조선을 13개도로 재편하고 관찰사 제도를 폐지, ‘도장관’을 임명했다. 그리고 첫 충남도장관으로는 경상북도 관찰사였던 친일파 박중양(朴重陽)을 발령했다. 그는 경상북도 관찰사 때 조선 마지막 임금 순종이 대구를 순행했는데 대구 수창학교가 태극기를 계양했다 하여 학교를 폐쇄시킬 만큼 뻣속까지 친일파였다. 또한 그는 일본제국의 최고실력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수양아들로 알려져 위세가 당당했다. 일본식으로 개명하여 ‘호추시게오’라고도 불리는 박중양은 1910년 10월 5일 충남도 도장관으로 충남도청 소재지 공주에 부임했다. 공주 시내 곳곳에 일장기가 계양됐는데 그가 경상도 관찰사 시절 일장기를 걸지 않은 대구 수창학교를 폐교 처분한 경력 때문에 그렇게 거리를 일장기로 도배를 하다시피 한 것이다.

도청 청사는 과거 관찰사가 집무하던 선화당을 임시로 사용하기로 했고 10월 6일 그곳에서 취임식도 거행했다. 그는 키가 작아서 옆구리에 차고 있는 칼이 땅에 깔릴 정도였고 총독부에서

이코 그러면서 어떻게 도민들과 대화가 됐겠는가?

박중양은 1911년 1월 18일, 은진군청을 강경으로 이전한 다음 그 해 2월 연기군 남면에 있는 연기군청을 방문했다. 군청을 조치원으로 옮기기 위해 연기군민들과 대화를 갖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미 박중양의 소문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주민대표로 간담회에 참석하려고 하지 않았다. 연기군민들은 조치원에 사는 일본인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군청 이전에 반대하였고 또 박중양 도장관 앞에서 무슨 면박을 당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당황한 연기군수가 도장관을 군수실에 남겨 둔 채 주민 몇 사람을 억지로 끌고 와야 할 정도였다. 화가 난 박중양은 헌병과 경찰을 풀어 연기군 내각면을 돌아다니다 구류를 시키도록 했다. 그리고 그 해 3월 연기군청을 조치원으로 이전했으며 2012년 세종시가 발족할 때 까지 조치원은 연기군의 군청 소재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강경으로 옮긴 은진군청은 불과 3년이 못돼 33개 군을 13개 군으로 통폐합 하는 바람에 논산으로 다시 이전하기도 했다.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조선총독은 박중양 충남도 장관이 총독부 방침에 충성을 다하는 것에 매우 만족해했다. 그리고 총독은 도장관에게 포드 세단을 보냈는데 이를 운전할 기사가 없어 한동안

묵혀 있다가 가까스로 공주에 사는 최모라는 사람을 보내 운전을 배우게 했다. 최씨와 함께 문갑동씨도 서울에 가서 운전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최씨는 도장관이 독촉하는 바람에 면허증도 따기 전에 공주로 와서 핸들을 잡았다. 무면허운전을 한 셈이다. 그래서 충청남도 운전면허 제1호는 문갑동씨가 차지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대전-공주, 공주-조치원 합승버스를 운영, 돈을 많이 벌었고 해방 후에는 대전시 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박중양 도장관은 그 해 4월 도청 집무실로 쓰던 선화당을 헐고 그 자리에 새 도청 청사를 착공했다. 지금 공주시 봉황동 75번지.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가 바로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갈 때까지 21년간 도청사가 자리 잡은 곳이다. 이처럼 일본에 충성을 한 공로로 1915년 중추원 참의로 영전한 박중양은 계속 친일 행각을 하다 해방 후 반민족행위자로 구속돼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으나 폐렴에 걸려 고통을 겪다 1959년 4월 23일 사망했다.



변평섭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계묘년 맞아 태안 '원청리 별주부마을' 재조명 되나

개점휴업 '별주부센터' 리모델링 상징 장소 스토리텔링 되살려야

[태안]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의 새해가 밝았다. 태안군에는 토끼와 관련된 지명의 두 곳 있다. 한 곳은 남면에, 한 곳은 안면도에 위치해 있다.

먼저 남면에는 일명 '토끼섬'으로 불리는 거아도리가 있다. 이곳은 섬이 토끼와 같다 하여 '토끼섬'이라 부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토끼섬'은 안면도 중장리에도 있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섬의 형태가 지명의 유래가 됐다.

지명 이외에도 태안군에는 토끼와 관련된 대표적인 설화인 '별주부전'의 전설이 스며 있는 상징적인 곳이 있다. 바로 남면 원청리 '별주부마을'이다.

마을 중심에 우뚝 서 있는 별주부센

터를 넘어 청포대 해변으로 이동하면 자라바위가 한눈에 들어온다. 자라바위 인근에는 별주부전 설화와 연계돼 한 해 풍어를 기원하는 '용왕제'가 열리는 상징적인 공간도 남아 있다.

별주부전 유래비를 지나 청포대 해안가로 이동하면 자라바위가 눈에 띈다.

「자라(별주부)의 감언이설로 자라의 등에 업혀 수궁에 들어갔던 토끼가 재치를 발휘하여 구사일생으로 육지에 돌아오게 되자 “간을 빼놓고 다니는 짐승이 어디있냐”며 자라를 놀려대고는 노루미재 숲으로 달아난다. 그러자 자라는 자신의 충성이 부족하여 토끼에 속았다고 탄식하여 용왕을 향해 죽는다. 죽은 자라가 변화한 것이 바로 이 바위이며 그래서 이 바위를 자라바위 또는 덕바위로 불려오고 있다.」

한편, 별주부마을에는 별주부전의 스토리텔링에 힘을 실어 줄 '별주부센터'가 위치해 있다. 별주부센터는 지



태안군 남면 청포대해변에 자리한 자라바위. 자라바위 앞 자라 등에 오른 토끼 조형물이 설치돼 별주부전의 유래지라는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다.



원청리에 위치한 별주부센터.

난 2010년 1월 남면 원청리에 건립된 지하1층·지상9층 규모로, 독살전문 어촌체험 휴양마을이자 고전 설화 별주부전의 발원지로 알려진 별주부마을을 상징하는 건축물이나, 준공된 지 12년이 지나 시설 및 콘텐츠가 노후화돼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온 바 있다.

태안군은 군비를 포함해 6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별주부센터의 옛 명성을 되찾겠다는 각오다.

스토리텔링과 별주부센터의 리모델

링까지 개점휴업에서 벗어나 비상할 준비에 분주한 별주부마을. 올해 계묘년 토끼해를 맞아 별주부마을이 전국의 관광지로서 명성을 높이는 한해가 되길 기대해본다.

/주간태안신문 제공

'남당항 새조개축제' 3년만에 대면 개최

남당항 축제공원서 31일까지 오프라인 식당 가격 통일 판매

[홍성] 홍성군 대표 먹거리 '새조개'를 제철에 맛볼 수 있는 '제20회 홍성 남당항 새조개축제'가 14일부터 31일까지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 축제공원 일원에서 3년 만에 개최된다.

14일 오후 4시 남당항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유심초, 우연이, 박진도의 축하공연과 불꽃놀이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되며, 축제기

간 동안 주말 및 설 연휴에는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노래자랑 대회, 새조개 까기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새조개 샵브 샵브 1kg 온라인 판매는 7만 원이며, 남당항을 찾은 관광객들에게는 모든 식당이 8만 원으로 가격을 통일하게 판매함으로써 방문객들의 혼란과 불편함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겨울철 별미인 '새조개'는 속살이 새머리와 부리 모양과 비슷하게 생겨 붙여진 이름으로, 특유의 담백함과 감칠



맛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과 지방함량이 낮아 동맥경화, 혈전 예방 등 건강에 좋으며 풍부한 영양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몸의 면역력 증강에 좋은 홍성군의 대표 수산물이다. /홍성군 제공

탐정호 출렁다리 전면 개방 방문객 접근성·편의 증진

[논산] 논산시가 전국 방문객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탐정호출렁다리의 입장료를 없애고 전면 개방했다.

탐정호 출렁다리는 600m의 길이를 자랑하는 동양권 최장(最長)의 출렁다리로, 2021년 11월말 정식 개통한 이후 2022년 12월까지 88만여 방문객이 다녀갔을 만큼 '전국구' 관광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탐정호출렁다리의 동절기(11-2월)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까지이며, 출렁다리 왕복시간을 고려해 입장은 오후 4시 30분까지로 제한된다.

아울러 2023년부터는 정기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정상 운영하는 대신, 공휴일 바로 다음 비공휴일에 문을 닫는다.

/논산시 제공

예산, 백종원 손잡고 전통시장 살린다

빈 점포 활용 5곳 오픈 지역 농·특산물 적극 활용

[예산] 예산군과 백종원의 더본코리아가 공동으로 진행해 온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가 본격 공개됐다.

이번에 창업하는 5개 점포는 더본코리아에서 리모델링을 직접 추진하고 창업자들도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서 교육 및 선발을 거쳐 창업하는 점포들로 ▲금오바베큐(닭바베큐) ▲신광정육점(부속고기) ▲신봉국수(파기름국수, 잔치국수) ▲시장닭볶음(짜리고추 닭볶음탕) ▲불판빌려주는집(상차림, 쌈채소) 등 5개소가 정식으로 문을 연다.

창업 메뉴들에 대해서도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레시피 연구를 통해 외부 관광객들에게 예산시장과 예산의 맛을 알리는데 역점을 두고 개발에 신중을 기했다.

예산국수를 활용한 파기름 국수는

지난해 종료된 맛남의 광장에서 개발된 메뉴를 한층 업그레이드한 것이며, 예산 파리고추를 활용한 예산시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닭볶음탕과 기존 정육점에서 잘 판매되지 않는 특수 부위 위주의 부속고기를 판매하는 정육점이 자리했다. 닭바베큐도 예산시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레시피를 개발했다.

또 창업점포 뿐만 아니라 기존 시장 내 점포들과의 화합을 위해 ▲예터칼국수(마라칼국수) ▲시장중국집(옛날식짜장면) ▲또복이네(제육볶음) ▲대홍상회(떡태구이) ▲고려떡집(고기떡) 등에 대해서도 추가 메뉴를 개발해 다양한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자 레시피 컨설팅을 지원했다.

총괄 지휘를 맡은 백종원 대표는 "많은 외부 관광객들이 예산시장을 찾아 어렸을 적 북적북적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저의 희망이다"라고 말했다. /예산군 제공



무령왕 서거·성왕 즉위 1500주년, 찬란한 백제 역사 속으로

1)1500년 전 백제의 숨결을 찾아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백제 역사 탐험대'에 참가하셨습니다. 저는 백제의 역사를 안내할 '총나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저와 함께 1500년 전의 백제로 과거여행을 떠나게 될 겁니다. 이번 여행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23년은 무령왕 서거 1500주년이자 성왕 즉위 1500주년, 백제금동대향로 발굴 30주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3년은 '대백제, 세계와 통하다'라는 주제로 충청남도 대표 축제인 '대백제전'이 개최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2023년 현재 우리는 공주 무령왕릉

총나미와 함께 1500년 전 백제로의 시간여행

에서 무령왕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으며, 공주와 부여 시내 곳곳에서 성왕과 백제금동대향로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1500년 전의 흔적들은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은 세계가 인정한 백제의 흔적을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탐정입니다. 탐정이 사건 현장에 남겨진 흔적을 가지고 사건을 해결하듯이 1500년 전 백제인이 남긴 흔적을 통해 과거 역사를 재현해 볼 것입니다. 어떤가요, 설레지 않으신가요?

자,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 무령왕 서거의 흔적을 찾아갈 것입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지금 저희가 향하는 곳은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무령왕릉입니다. 1500년 전의 백제 역사를 찾아가 봅시다. 탐

정은 사건 '현장'을 찾아가 살펴보면서 많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 래야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탐정이 흔적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듯 우리는 남아 있는 흔적을 보면서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백제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왜 무령왕릉이 공주에 있을까? 무덤에 안장된 무령왕은 누구일까? 등의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야 합니다. 질문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백제금동대향로가 발굴된 부여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부여에 가서 또 다른 궁금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 공주에서 부여로 천도하게 되었는지, 백제금동대향로는 다른 나라엔 없는 것인지 등등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가는 여정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공주와 금강

그 여정 속에서 백제인이 남긴 흔적을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 그 속에 숨어있는 찬란한 백제의 문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백제 시대는 우리와 동떨어진 먼 옛날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공주, 부여 등의 지역은 백제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여

러 가지 핑계로 대화를 피하고 있을 뿐입니다. 일단 대화를 시작하고 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백제인의 숨결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숨결을 느낄 수 있게 우리 함께 한 걸음 나아가시죠. 조금 있으면 무령왕릉이 보일 겁니다.

/이경복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내포문화진흥센터장

난임부부 남성 지원조건 삭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충남 출산정책
임산부 우대적금 이자 확대,
산후건강관리 신청 기간 연장

충남도가 올해부터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 시 남성의 지원 대상 조건을 삭제하는 등 출산 장려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출산 정책은 3가지로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 ▲임산부 우대적금 이자 지원 사업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이다.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은 자연 임신에 위한 체질개선으로 여성에게 150만 원, 남성에게 100만 원의 한방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성의 경우 지난해까지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돼 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조건을 삭제했다.

치료기간도 여성은 실치료기간 3개월, 관찰기간 1개월, 남성은 실치료기간 3개월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 4개월(실치료기간 3개월+관찰기간 1개월)로 변경했다.

신청은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난임진단서, 사전검사결과지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임산부 우대적금 이자 지원 사업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자가 자녀(태아) 수에 따라 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우대 이율을 주는 사업이다.

충남 출산정책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 사업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 조건 삭제
치료기간 여성과 남성 모두 4개월로 변경
(실치료기간 3개월+관찰기간 1개월)



임산부 우대적금 이자 지원 사업

우대 이율 1.75%(농협 0.75%, 도 1%)로 상향
만기해지 시 3만원 상당 출산용품 지원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 기간 출산 후 1년 이내로 연장



도는 올해부터 이율을 1.5%(농협 0.75%, 도 0.75%)에서 1.75%(농협 0.75%, 도 1%)로 상향하고, 만기해지 시 3만원 상당 출산용품을 지원한다.

상품은 '더 행복한 충남 적금(NH농협은행 정기적금)', 아이(1)든든 적금(농협상호금융 자유적금)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임신부 확인서류, 주민등록 등·초본을 준비해 거주지 인근 농협이나 지역 농축협을 방문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2자녀 이상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소진자에게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은 1인당 연 1회, 최대 20만 원 범위 내이며, 요양기관 진료 및 의약품 구입 후 비용을 일괄 청구하면 지원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신청 기간을 출산 후 6개월 이내에서, 출산 후 1년 이내로 연장해 보다 많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도 관계자는 "임신·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보육정책과 041-635-2614

성인지 정책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성별 신체적 차이를 고려한 정책 사례

출입문 잠금장치 이동설치 (금산군 청소년미래센터)



출입문 잠금장치를 아래로 이동 설치, 개선을 통해 편리성 제고

충남여성가족연구원

그래픽 / 박건부

2023년도 지방보조금 개편

2023년 1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편e (www.logims.go.kr) 개편

기존

보조사업자 통장에 보조금 선지급, 후증빙

→

변경

보조금 전용계좌에 보조금 예치, 보조사업자의 선증빙 후 보조금 이체

보편e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정보

※문의 - 충청남도일자리종합센터 ☎ 041-330-4972

지역	사업장	직종	인원	전화(041)	급여(만원)
천안	(주)뉴본다운	생산직	2명	558-9996	201~220
천안	에이엠테크	반도체 가공	1명	070-8871-5835	연봉 3,500 이상
천안	대덕가스(주)	생산직	1명	583-1156	연봉 2,800~3,200
천안	서천안노인복지재가센터	요양보호사	1명	572-8600	시급 12,100원 이상
아산	(주)아이디씨	경영지원 정규직	1명	548-6778	연봉 2,800~3,300
아산	(주)에스알피	아파트 경비	1명	031-503-1000	292 이상
아산	유다원	부품 조립 검사	5명		시급 9,620~11,000원
아산	(주)홍진기업	영업관리	6명	031-224-9212	연봉 3,000 이상
당진	(주)티에스벤딩	노무	2명	357-9431	250~500
당진	인전테크빌	조립 보조	2명		250 이상
당진	반딧불나눔복지재단	김 부각 생산 포장	4명	629-6047	시급 9,620~ 9,620 원
당진	(주)에스앤비	물류센터 관리원	5명	350-8946	연봉 3,200 이상
서산	더케이텍(주)	제품 검사	1명	429-9325	연봉 4,000 이상
서산	한가족재가복지센터	요양보호사	1명	666-1195	시급 12,100원 이상
서산	은성기업(주)	자재 관리 및 보수	4명	668-3023	연봉 3,800~4,700
서산	(주)미가온푸드	생산직	10명	663-4131	210 이상
공주	(주)에드스윗	생산직	2명	851-8508	300~320
공주	(주)신광하이텍	생산직	4명	841-2470	시급 9,620~ 9,620원
공주	(주)에코스타일	경관전시 디자이너	2명	855-9002	240 이상
공주	(주)티엠피	배송 및 생산	2명	858-5556	210~250
논산	(주)한성넥스	사무보조	2명	731-8607	연봉 2,500 이상
논산	에스제이기계	생산직	6명	731-8607	시급 9,620원 이상
논산	(주)유니버설캠텍	생산직	2명	734-7090	연봉 3,000~3,200

지역	사업장	직종	인원	전화(041)	급여(만원)
논산	창인테크	생산직	4명	740-5360	시급 9,620원 이상
보령	대전학해해양수련원	해양강사	8명	930-8322	일급 160,000~ 210,000원
보령	(주)에이지	생산직	3명	935-2020	290~330
보령	한국바이오에너지	생산직	5명	942-2322	250
보령	어업회사법인 대보	생산 관리	8명		210~350
계룡	(주)마메든도어	생산직	3명	042-542-4008	연봉 2,800 이상
계룡	옥스포드어학원	영어강사	2명	042-841-0512	시급 15,000~25,000원
계룡	(주)혜련식품	경리	1명	042-582-2144	205 이상
계룡	효성요양원	요양보호사	3명	042-841-4800	230 이상
홍성	(주)케이티에스테크	생산직	3명	641-6006	시급 9,620원 이상
홍성	(주)성도폼텍	생산직	2명	631-9862	연봉 3,000 이상
예산	엠에스빌트(주)	생산직	2명	404-7766	시급 9,700원 이상
예산	극동에치팜(주)	생산직	5명	331-3371	시급 9,620원 이상
태안	청명호	통발 선원	2명		250~300
태안	코리아텍(주)	설비 배관	2명	669-8189	연봉3,500~ 5,000
서천	충남마린김가공수협	생산직	30명	930-6291	시급 10,000~12,000원
서천	바다로21	생산직	3명	952-5820	시급 9,620원 이상
부여	우듬지팜(주)	현장공무관리	2명	930-6229	230~250
부여	백제포장	생산직	2명	837-0105	연봉 3,000~3,200
금산	금산다락원	기간제근로자	4명	750-4476	252
금산	(주)금산물	제조생산관리	2명	753-0222	연봉 2,420~4,000
청양	(주)한울	생산직	15명	930-6218	201~220
청양	신왕종축	양돈장 관리	2명	942-1686	201



자료제공/충남문화재단

2023.1 문화 달력

일	월	화	수	목	금	토
---	---	---	---	---	---	---

- 2023 공주문화재단 기획전 <에코이스트>(~ 2월 5일까지)
- 2022 소장품 상설전 이응노, 그리다 (~ 3월 5일까지)
- 에콜드 아미 레지던시 결과보고전(~ 3월 28일까지)
- 2022아미마켓 - 상상력에게展 (~ 3월 28일까지)

- 13
- 2023 신년음악회 희망의 왈츠
 - 2023 천안예술의전당 신년음악회

- 14
- 2023 예명챔버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기념 아트벨리 아산(2023 신년음악회)

15	16	17	18	19	20	21
----	----	----	----	----	----	----

22	23	24	25	26	27	28
----	----	----	----	----	----	----

- 27
- 크로스오버 '2023 신년음악회'

행사&공연 안내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기념 아트벨리 아산 <2023 신년음악회>

- 일정 : 2023년 1월 14일(토)
- 시간 : 17:00
- 장소 : 경찰인재개발원 차일혁홀
- 연령 : 전체
- 관람료 : 무료
- 문의 : 041-534-26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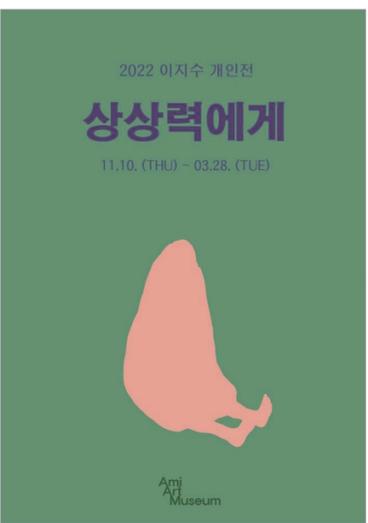
크로스오버 <2023 신년음악회>

- 일정 : 2023년 1월 27일(금)
- 시간 : 19:30
- 장소 : 서산시문화회관 대공연장
- 연령 : 초등학교 이상
- 관람료 : S석-20,000원, A석-10,000원 (할인대상 I -20%, 할인대상 II -50%)
- 문의 : 041-661-8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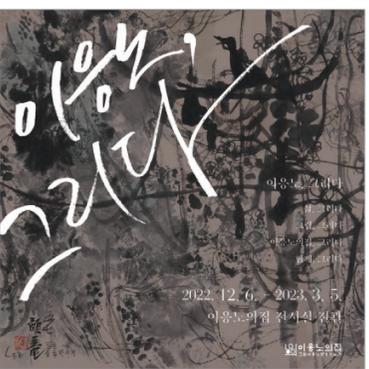
2023 공주문화재단 기획전 <에코이스트>

- 일정 : 2023년 1월 3일 ~ 2월 5일
- 시간 : 10:00 ~ 18:00(1.21~24 휴관)
- 관람료 : 무료
- 장소 : 아트센터 고마(충청남도 공주시 고마나루길 90)
- 문의 : 041-852-6038



2022아미마켓 <상상력에게展>

- 일정 : ~ 2023년 3월 28일까지
- 시간 : 10:00 ~ 18:00(1.21~24 휴관)
- 관람료 : 성인 6,000 원 / 24개월 ~ 고등학생 4,000 원
- 장소 : 당진 아미미술관(충남 당진시 순성면 남부로 753-4)
- 문의 : 041-353-1555



2022 소장품 상설전 <이응노, 그리다>

- 일정 : ~ 2023년 3월 5일까지
- 시간 : 10:00 ~ 18:00(월, 설 연휴(1.21~24) 휴관)
- 관람료 : 성인 1,000원(15인 이상 단체 700원), 어린이, 청소년, 군인 500원(15인 이상 단체 300원)
-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 유공자는 무료입니다.
- 장소 : 이응노의집(충남홍성군 홍북읍 이응노로 61-7)
- 문의 : 041-630-9232

향한 대형카페같은 충남도서관

도민이 소개하는 충남 구석구석

충남도서관은 충남지역을 대표하는 도서관입니다. 2018년에 개관했는데, 도민 여가공간으로 활용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입니다.



충남도서관 1층.

충남도서관은 충남지역을 대표하는 도서관입니다. 2018년에 개관했는데, 도민 여가공간으로 활용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입니다.

2층은 회의실, 북카페 소모임실, 기획전시실, 전자자료실이 있으며 3층은 일반자료실, 특성화자료실, 소모임실, 다목적실, 메이커스페이스(문화프로그램 진행) 등이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가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같은 이곳은 요즘 유행하는 대형 카페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훨씬 더 멋진 곳이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 아름다움에 힐링이 되는 곳!

충남도서관 1층은 사물함,유모차를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어린이자료실, 유아자료실과 일반자료실이 함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책장에 압도당하는 기분마저 드는데요. 그래서인지 굉장히 이색적이고 영화같은 모습입니다.

충남도서관은 정말 멋진 공간입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고 아늑한 이곳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된 모든 걸 누리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도민리포터 dragonsun



사서들의 서재



<재벌집 막내아들/산경/테라코타/2022. 11>

지난해 겨울 화제의 드라마로 한창 뜨겁게 달아올랐던 <재벌집 막내아들>이 마침내 종이책으로 출간되었다.

본 이야기는 13년간 온갖 고통을 다하며 순양 그룹에 충성을 다했지만 끝내 그 충성을 바친 회사로부터 비참하게 죽어버린 주인공 '윤현우'가 그가 몸담았던 순양 그룹 집안의 막내아들 '진도준'으로

재벌가족 정치극과 환생물의 결합

환생하면서 자신을 죽인 순양 그룹 후계자들에게 복수하는 판타지 소설이다.

'환생'이란 소재는 흔히 픽션에서 자주 쓰이는 아이টে็ม으로, 보통 우리나라 고소설 중 환생물의 대표작 '구운몽'이 그 대표작이다.

여든 주인공은 환생 전에는 삼류대 출신에 보잘것없는 회사원이었지만, 재벌가 아들로 환생한 후에는 이미 한 차례 미래를 경험해왔기에 이를 무기로 다른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비전과 그만의 통찰력을 어김없이 발휘한다. 보통 환생물에서 주인공의 캐릭터는 무조건 강하고 똑똑하다는 설정으로 남과의 경쟁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존재이다.

독자에 따라서는 이런 주인공의 캐릭터 설정이 뻔하고 진부할 수 있는 부분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소설의 주인공은 2회차 인생임에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캐릭터이다. 이유는 이 소설의 주 무대가 재벌가 정치극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서열도 제일 낮은 막내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시작부터 핸디캡을 갖고 시작하는 게임인 것이다.

이러한 설정으로 독자들은 주인공이 가진 그 능력이 완전무결하지 않고 절대적이지 않음을 알기에 2회차 인생을 겪으면서 치열한 삶을 살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독자들은 이 소설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몰입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드라마로 먼저 이 작품을 접한 분들에게 이 소설이 드라마에선 다소 아쉬웠던 결말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작품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동명의 웹툰도 있으므로 같이 읽어보면 두 배로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충남도서관 도서관정책과 유재열

“엄마가 여자란 걸 몰랐어요”

93세 광곽분 어르신과 따님 65세 문지선 씨

[서신] “저희 할머니께서는 14살에 지금은 무인도가 되어버린 보령 ‘길산도’로 시집을 오셨습니다. 8남매의 어머니로, 한 사람의 아내로 80여 년간을 오직 남편과 자식만을 위한 삶을 살고 계셨지요. 그러다 몇 년 전 할아버지께서는 먼저 하늘나라로 가시고 지금은 넷째 딸과 함께 안면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세찬 바다에서 조개를 캐고 굴을 따서 8남매를 키우셨던 저희 할머니였지요. 허리 한 번 올곧게 펴는 날 없이 말이에요. 힘든 와중에서도 흑여나 어느 자식 하나라도 다칠세라 아플세라 걱정을 비워내지 못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할머니에게 눈부신 날을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사시면서 아팠던 모든 날들 있었다면 다 잊으시고 오늘날이라도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분 좋은 오늘의 기운을 가슴 깊이 담아두시면서 아프신 곳 없이 남은 시간 즐겁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빌어요. 할머니 사랑합니다.”

93세 광곽분 어르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는 손자 문수협 씨의 말에는 습기가 가득 묻어 있었다.

뻘한 장수 사진 대신 생애 봄날을 찾기 위한 ‘내생애봄날 눈이부시게’ 팀 사진 봉사자들은 「꼭, 껴안아 주세요. 꼭, 행복해지세요」 라는 주제로



광곽분(93세) 어르신과 딸 문지선(65세) 씨.



광곽분 어르신이 화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딸 문지선 씨.

행사를 진행했다.

“우리 엄마도 화장하니 너무 곱네요. 2남 6녀를 낳아 키우며 역력스럽게 사는 엄마를 보며 저는 그냥 엄마라고만 생각했는데 엄마도 여자였다는

걸 속눈썹 붙이는 모습 보고 알았네요. 왜 여태 알지 못했는지... 오늘 엄마의 모습이 너무 고와서 정말 기분 좋네요”라는 따님 문지선 씨. 그녀는 “엄마와의 마지막 모습을 평생 간직하

고 싶어 이번 사진 촬영을 하게 됐다. 엄마와 함께 평생 남을 추억을 만드려고 일주일간 다이어트를 했다”고 말하며 활짝 웃었다.

/서산시대 제공



“겨울 간식은 군밤이 최고” [공주] ‘제6회 겨울공주 군밤축제’ 첫날인 6일 축제장인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 일원을 찾은 어린이들이 낱알뿔망울을 이용해 직접 밤을 구워 먹을 수 있는 지름 2m의 대형화로에 알밤을 굽고 있다. /공주시 제공

토끼의 영리함을 닮은 당진시민의 새해 희망

자녀 돌봄 공백 메꾸기 어려워 “워킹맘이 행복한 당진 되길”

[당진] 2023년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년이 밝았다. 토끼는 순하고 영리하면서 빠른 동물로 많이 알려졌다. 새끼를 낳을 때 여러 마리를 낳는 만큼 번창과 풍요의 상징으로도 불린다. 이에 지역에서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토끼 시민을 만나 2023년 새해 소망을 들었다.

이보람 씨는 매일 치열하게 살아가는 워킹맘이다. 2년 전, 좋은 기회로 취업을 할 수 있었던 이보람 씨는 다시 일할 수 있어 기뻐했다. 그러나 워킹맘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녀 돌봄 공백을 메꾸기까지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야만 했다.

“취업했을 당시 첫째는 1학년, 그리고 둘째는 6살이었어요. 그나마 둘째는 어린이집을 다녀서 나왔지만, 첫째는 초등학교에 이제 막 입학했던 만큼 돌봄 공백을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었죠. 특히, 아이들이 아프면,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확인해서 수시로 챙겨줘야 하는데, 일을 시작하면 그게 쉽지



당진 시민 이보람 씨 (1987년생)

않아 속상했어요. 작은 회사에서는 아이들이 아프다고 그냥 나오기도 힘들니까, 초반에는 어려움이 컸어요”

방학에는 돌봄 공백이 더욱 컸다. 그나마 둘째는 어린이집을 다녔기 때문에 상황이 나아졌지만, 첫째는 학교 돌봄을 방학 기간중 1~2주밖에 받을 수 없었고, 그마저도 오전 시간에만 돌봄이 이뤄졌다. 이에 보람씨는 여성이 자유롭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워킹맘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

기를 희망했다.

“일을 시작했던 초반에는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아마 많은 워킹맘은 저랑 같은 마음일거죠. 앞으로는 워킹맘이 돌봄에 대한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시에서도 여성들이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느꼈지만, 당진에서는 내가 전공했던 분야의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고, 취업을 하더라도 대부분 처우가 낮거든요”

그는 마지막으로 2023년 무엇보다 가족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길 바랐다.

“일을 시작하고 아이들을 세세하게 바라보기란 쉽지 않더라고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은 한 곳 차이잖아요. 그만큼 아이들이 잘 자라고, 학교도 잘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내년에는 더 많이 웃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도 풍요로워지기를 희망합니다”

/당진신문 제공

“안정보다 도전 통해 새로운 삶 개척”

궁도 선수로 변신해 인생 2막에 도전장

[태안] “주변에서 보장된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고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이 아이냐고 말렸어. 하지만 아내는 나의 결정에 흔쾌히 동의해주고 격려를 해준 것이 힘이 되었다.”

계묘년 새해 아침 충남 태안 궁도인들의 소중한 공간인 소성정에서 만난 이진영(55세)씨는 태안경찰서 태안지구대에서 근무하던 현직 경찰간부인 이진영 경정에서 새해부터는 충남체육회 소속 궁도선수단의 실업선수 이진영으로 변신하게 되었다.

이진영씨는 1990년 충남 홍성경찰서 결성지소에서 경찰관으로 첫발을 내딛어 32년 9개월 근무하다가 경정으로 명예퇴직을 했다.

경찰관 재직하는 동안 앞에서 보다는 뒤에서 동료들을 배려하고 희생하는 경찰관으로 직원들 사이에 기억되고 있는 가운데 근정녹조훈장, 경찰청장과 도지사 표창을 받는 모범적인 경찰관 생활을 마무리했다.

경찰관 생활에 활기를 준 ‘활’

1990년도에 시작한 경찰관 생활이 15년 정도 지나니 무기력해지고 우울증 등이 겹치면서 힘든 시기가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태안궁도협회 조선업 고문으로부터 활을 한번 쏘면 어떠한 권유로 궁도와 인연이 시작되었다는 이진영씨는 활을 쏘기 시작하면서 우울증도 치유 받고 경찰관으로 다시 초심을 찾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아마 그때 활을 만나지 못했으면 경찰관도 계속 못했고 인생의 실패도 맞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활을 쏘면서 궁도의 매력인 ‘멘탈’을 잡아주는 운동이라는 진리를 스스로 깨닫게 되었고 흔들릴 때마다 사선에서 과거를 향해 시위를 당기면서 스스로 멘탈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진영씨는 이후 근무 시간이 끝나면 소성정에 가서 활을 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사선에서 한발 한발 활 시위를 당기면서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실력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경찰관에서 궁도선수로 변신한 이진영 씨가 활시위를 당기고 있다.

매너리즘에서 벗어나고자 명퇴 결심 이진영씨는 경찰관 생활 30년이 넘어가면서 매너리즘에 밀려왔다고 한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역시 활을 쏘는 것 밖에 없었다.

활을 15년 이상 쏘면서 그 실력이 태안군을 대표하고 충남에서도 그 실력이 최상급에 다가선 그는 2022년 큰 결심을 하게 된다. 매너리즘에 빠진 경찰관을 과감히 명퇴하고 궁도 실업선수에 도전하기로 남모르게 준비에 들어갔다.

충남체육회 소속의 전국체전 대표 선발전을 1, 2, 3차 출전하면서 7명을 선발하는 충남궁도 선수단 실업 선수에 도전장을 냈고 드디어 치열한 활시위 끝에 선발되어 실업 선수로 정식 계약을 맺게 되었다.

그사이 아내에게 경찰관을 명퇴하고 궁도 실업선수로 제 2의 인생 도전장을 내겠다고 선언을 했고 활 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아는 아내는 그의 결심에 박수를 보냈다고 한다.

궁도 실업 선수로 인생 2막 도전장 이진영씨는 충남도체육회와 지난 연말 정식 입단 계약을 하고 충남궁도선수단 소속으로 올해 전국체전 등 전국 대회에 충남선수단의 일원으로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하게 된다.

/주간태안신문 제공



충청인은 과연 누구인가?

내포칼럼



편 세 환
서산문화원장

계묘(癸卯)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계묘년은 12간지에 따라 네 번째 맞이하는 해로서, 본래 간지는 고대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방위나 시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정립된 것입니다. 간지를 12가지 동물의 상징으로 표기한 것은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토끼는 본래 천성이 순박하고 영리하며 부지런한 동물로서 어쩌면 충청도 사람들의 성품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충남은 아름다운 서해안과 금강, 그리고 기름진 옥토가 어우러져 각종 먹거리가 많고, 인심 좋아 삶이 풍요로운 곳입니다.

이곳에 사는 충청인은 모든 일에 함부로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하며, 상부상조 협조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덕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북쪽의 기마민족이 내려와 삼한 시대를 열었고 삼국시대를 거치면서 찬란한 문화와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했으며, 특히 백제 시대에는 중국과 교류하면서 선진문물을 받아들여 발전했고, 일본 등 외국에 우리 문화를 전파한 대국이었습니다. 그 중심지가 바로 충청도입니다.

특히 충남의 일부 지역은 바다가 내륙에 깊숙이 들어와 크고 작은 포구를 형성하여 내포 지역이라 부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토끼처럼 부

지런하고 인심이 후덕합니다. ‘말은 좀 느려도 행동은 빨라 유’ 하며 순박하게 웃는 토박이 내포 사람들,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구수하고 정겨운 사투리는 누가 들어도 정감이 넘치는 사투리입니다.

내포 지역 사람들의 말이 느린 원인이 무엇일까?

학자에 따라 주장이 약간 다르지만 주된 원인은 충청도는 삶의 공간이 넓



말이 느린 것은 삶의 공간이 넓고 마음이 여유로워
삼강오륜과 인, 의, 예, 지, 신에 대한 신념강해
국가와 민족위한 중추적 역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해



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여유롭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비좁은 공간에 모여 아웅다웅 사는 산골 마을에 비교하여 특히 내포 지역은 넓은 농토 위에 식수따라 집을 짓고 넉넉하게 살기 때문에 생활 공간이 넓고 여유롭습니다.

드넓은 공간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부를 경우나, 넓은 농토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소통하고, 또는 바닷가 멀리서 갯일 하는 이웃을

부를 때에 어쩔 수 없이 큰 소리로 길게 소리쳐 불러야 만 소통이 가능하기에 자연히 말이 느려졌다는 설이 유력한 것으로 봅니다.

충남에는 비교적 큰 산이 없고 골이 깊지 않아 물살이 급하지 않고 유유히 흐르는 관계로 이러한 곳에 사는 사람들의 성품은 비교적 느슨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충남은 우리나라에 성리학이

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일까? 충청인들은 삼강오륜(三綱五倫)과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에 대한 신념이 강하기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의사와 열사들이 다른 곳보다 월등히 많은 지역입니다. 일제에 항거하다 목숨을 바친 윤봉길, 유관순, 이순신, 이동영, 한용운, 김복환, 한원진, 이철영 등 많은 분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 초기 충남 아산 출신으로 장영실이 있습니다. 장영실은 측우기, 물시계, 자격루, 해시계, 혼천의, 금속활자 등 많은 과학 기기를 발명하였으며, 천문과학자 유방택 역시 충남 서산사람으로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만들어 우주 과학을 연구하는데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만 원권 지폐 뒷면에는 그분들의 업적이 그림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또한 판소리의 원류도 충청도이며, 명창들 역시 충청도에서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이렇듯 충청인은 예나 지금이나 국가와 민족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충청도 사람들을 양반이라 호칭합니다. 충청도 양반 가슴속에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감이 살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와 전파된 곳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1237년 중국 송나라의 원외랑 정신보(鄭臣保)가 충남 서산의 간월도에 정착, 망명하여 그 지역 주민 자제들에게 성리학을 가르쳤고, 그 아들 정인경(鄭仁卿)으로 인하여 널리 보급된 것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간 알려졌던 안향(安珦)이 1290년 중국 연경에서 도입한 성리학보다 53년 먼저 들어왔다는 설이 유력해지

내포신도시 11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출입기자 칼럼



강 진 원
TJB 충남방송센터 (센터장) 국장

골 간이 매표소 같은 정류장은 일단 이 도시의 격을 낮춘다. 또 대전과 세종, 천안에 가려면 자가용이 없으면 곤란하다. 아주 가끔 운 좋게 시간이 맞아 버스에 오른다고 해도 동네 유람하듯 구석구석 다 정차하니 답답하다. 그 흔한 공유 자전거조차 볼 수 없는 신도시, 바로 내포의 오늘이다. 내포는 아주 불편한 도시다.

물론 시작은 이렇지 않았다. 지난 2012년 12월 28일 충남도가 이전을 마친 내포는 좀 과장해 말하면 ‘꿈의 도시’였다. 같은 해 출범한 세종시처럼 새로운 콘셉트로 무장한 미래형 도시였다.

그러나 10년 넘도록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인구 10만의 청사진은 온데 간데 없고 3만의 그늘진 모습만 남았다. 국가가 건설을 주도한 세종시와는 비교조차 어렵다. 도대에 왜 이렇게 됐을까?

홍성과 예산, 두 지자체에 끼어있는 어정쩡한 행정-지리적 위치, 도시개발을 맡았던 두 공기업의 꼼꼼하지 못한 사업계획들, 혁신도시에 대한 정부 지원과 관심 부족 등... 불편한 내포를 벗어나지 못한 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난 그 가운데 위정자들의 잘못을 제일 먼저 꼽고 싶다.

도백의 눈은 너무 먼 곳을 보고 있었다. 2012년 당시 집들이를 했던 주인의 시선은 내 집이 아닌 서울을 향해 있었고 그의 손과 발은 전국 구석구석을 쟁기느라 바빴다. 어수선했던 수 밖에 없는 입주 초반에 집안의 틀을 다져 안팎을 안정화시

켰어야 했는데 정작 다른 집들을 돕겠다고 매일매일 바쁜 격이었다. 그 다음에 안방을 차지한 주인은 집안 살림도 챙겼지만 역시 궁극의 지향점은 서울이었고 상대적 관심도는 낮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도백들의 큰 정치 활동으로 충남의 위상은 더 올라갔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집 앞의 눈은 늘 입춘까지 쌓여 있었다.

다행히 희망이 보이고 있다. 모호했던 도시 관리의 새로운 주체가 될 지자체 조합이 탄생한다. 그렇게 고대했던 종합병원도 먼 얘기가 아니라 3년 후면 수준 높은 의료진과 함께 내포에 들어선다고 한다. 동네 매표소 수준의 터미널은 제대로 된 모습으로 추진되고 있고 쇼핑센터도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무엇보다 그렇게 속을 썩이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이 상반기 확정되면 내포의 도시 체급은 한 단계 올라갈 것이다. 여기서 가장 고무적인 것은 새로 내포의 지휘자가 된 도백이 내 집앞부터 챙기겠다는 자세를 확실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내포신도시는 그저그런 도시가 되어선 안된다. 충남 15개 시군의 중심이어야 하고 옛날 중부권 내륙 중심이었던 내포(內浦)의 부흥을 이끌어야 한다.

같은 해 출범한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것처럼 내포는 충남 나아가 중부권 균형발전의 상징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내포 주민들의 삶을 편하게 만드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내포 생활 3년째. 하루를 마감하며 오늘도 흥예공원을 걷는다. 잔잔한 물결과 하늘거리는 역새와 수초, 개구리 소리.. 어린 시절 마을 연못처럼 아늑한 풍경이다. 그러다 고개를 들면 보이는, 근처 도서관부터 멀리 아파트의 불빛은 이곳이 새삼 도시란 사실을 일깨워준다.

그럼 도시로서 내포의 삶은 어떨까? 한마디로 불편하다. 지난 2016년 내포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방송기자로서 주민들에게 취재를 해보면 답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불편하다’는 것이다.

가족이 아프면 마땅히 갈 병원이 없어 발을 동동 굴러야 하고, 밤이나 휴일은 더욱 그렇다. 주말 가족들이 손잡고 여유로운 쇼핑을 할 곳도 없다. 오죽하면 내포의 쇼핑물은 ‘다이소’라고 하지 않는가. 실내골프연습장 몇 곳을 빼면 레저나 스포츠 시설도 없다. 다른 도시에서는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크린넷’은 여기서 오히려 애물단지가 된 지 오래다. 교통은 더 심각하다. 시

개구쟁이 컴맹의 모험

소중애 문학관의 책들(17)



소 중 애 동화작가

련이 있기는 했지만 나는 컴퓨터 예찬을 했다. 미친 듯이 자판을 두드렸다. 91년과 92년에 14권의 책이 출판되었다.

아,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모니터의 글이 잘 보이지가 않았다. 겁이 났다. 점점 어두워지던 모니터는 글자를 식별하지 못할 지경까지 되었다. 요즘도 컴퓨터가 비싸지만 그 때는 내 수입 대비 많이 비쌌다. 저장해 둔 원고가 사라질까봐 겁이 났다. 떨리는 마음으로 AS 기사를 불렀다. 기사는 컴퓨터를 켜고 살펴보니 말했다.

“에잇 사모님, 모니터 좀 닦으셔서 사용하세요.”

하면서 모니터를 휴지를 닦아 내자 오! 화면이 환해지면서 글자가 나타났다! 지금 생각해도 우습다. 화면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닦아주면서 왜 컴퓨터 모니터 닦을 생각을 못했을까?

나는 컴퓨터의 그 많은 기능 중에서 오직 워드만 사용했다. 그런데 학교가 전산화 작업을 시작하고 컴퓨터가 들어왔을 때 떠밀려 정보부장이 되었다. 컴퓨터를 갖고 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다. 진담 나는 일이었다. 모르는 것을 배우려 컴퓨터 학원에 뛰어 다녔고 학원선생님에게 SOS 요청, 괴롭혔다. 이렇게 고생 고생 하다가 탄생한 책이 개구쟁이 컴맹의 모험이었다.

요즘도 나는 하루의 반 이상을 컴퓨터 앞에 보낸다. 그러나 여전히 워드만 사용하는 컴맹이다.

손으로 원고지에 글을 쓰다가 타자기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어쩌나 두드려 댔는지 손톱 밑에 피가 맺히고 팔이 아파 분필 드는 것만도 힘겨웠다. 1991년 대학원을 다닐 때였는데 교수님이 컴퓨터를 권했다.

“제가 기계치라서 겁이나요.”
“기계치라고요? 선생님은 차도 운전 하잖아요. 차는 사고나면 사람을 상하게하지만 컴퓨터는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아요.”

조언을 듣고 1991년부터 컴퓨터로 글을 썼다. 컴퓨터로 글을 쓰게 되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듯 했다. 자판 두드는 것이 부드럽고 복사, 잘라내어 다른 곳에 보관했다가 불러내어 다시 쓰는 기능 등이 좋았다. 원고 쓰는 일이 빨라졌다. 저장을 잘못해 원고가 통채로 사라지는 일도 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진담이 났다. 한번 떠난 원고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원고는 어디로 갔을까? 우주 어딘가에 떠돌아다니며 별들에게 보여 주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시

충남도림

신문 무료 구독신청 및 취소는
충청남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041-635-2035



충훈탑 참배로 계묘년 힘찬 출발

충남보훈공원에서 헌화·분향
도민의 평안과 행복 기원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2일 오전 홍성군 소재 충남보훈공원 충훈탑 참배를 시작으로 계묘년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참배에는 조길연 의장과 김복만·홍성현 1·2부 의장을 비롯해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과 이상근 부위원장, 이종화 의원, 최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구형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등 충남도의회와 의회사무처 간부 직원들이 참석했다.

조 의장은 충훈탑에 헌화와 분향을 하며, 순국 선열의 넋을 기리고 새해를 맞아 충남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조 의장은 “지혜와 풍요를 상징하는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충남도민 모두 평안하고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며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이 시점에서 도민들께서 안정된 일상으로 하루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48명의 충남도 의원은 올 한해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와 의회사무처 간부 직원들이 지난 2일 오전 홍성군 소재 충남보훈공원 충훈탑 참배를 시작으로 계묘년 첫 일정을 시작했다.

충남도의회, 2022 지방의회 우수사례 ‘대상’

국내 최초 입법평가 전담부서 신설
전문적 시스템 구축 인정받아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역대 최초로 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고, 26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지방의회 우수사례 기관 표창 전수식을 가졌다.

도의회는 경진대회에서 ‘좋은 입법을 위한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우리나라 최초로 입법평가 전담부서를 신설함으로써 도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섰다.

또 자치입법의 질적 향상과 지방분권 성숙에 상응하는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시스템 구축, 그 성과를 높이 인정받아 대상을 수여 받았다.

전수식에서 조길연 의장(부여2)은 “김찬배



충남도의회가 역대 최초로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도민을 위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의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 지방시대에 대비해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년 정책지원관 14명 채용

일반임기제 7급 신규임용
의회 정책역량 강화 기대

충남도의회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을 채용한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며 도입됐으며, 정책지원관의 주요업무는 ▲의정자료수집·조사·연구 ▲조례 제정·개폐 및 예산·결산 심의 지원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의정활동 지원을 담당한다.

충남도의회가 이번에 채용하는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 7급 14명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임기는 2년으로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년까지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자격은 만 20세 이상,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채용 일정은 ▲원서접수(1월 11일~1월 13일) ▲면접시험(1월 26일~1월 27일) ▲합격자 발표(1월 30일)의 절차로 진행해 2월에 임용할 예정이며, 관련 사항은 충남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올해 14명의 정책지원관이 선발되면 지난해 채용된 10명과 함께 총 24명의 정책지원관이 충남도의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남도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시험에 전국의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가 많이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가 가까운 곳에서 도민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 지역민원상담소란?

충남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도민의 고충민원 해결을 목적으로 충남도 내 15개 시·군에 총 18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도민상담소입니다.

▶ 지역민원상담소기능 과 역할



양방향 소통을 위한 현장청구

충남도민의 고충 민원 상담, 입법 정책건의 등 도민 의견 수렴



의정활동 자료 수집의 장

조례 제정, 예산 편성 시 수렴된 도민 의견을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



지역발전을 논의하는 테이블

충남도민, 공무원, 각종단체 등이 상담사와 지역발전을 논의



스마트원격 사무공간

도의회가 원격지에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의정활동 거점



충청권 시도의회, 상생 발전 위한 협력 다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예산 확보 및 시설 구축 지원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출범 등 공동 대응 의지 표명



4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충청권 상생 발전을 위한 4개 시도의회 간담회를 열고 협력을 다짐했다.

충남도의회는 충청권 상생 발전을 위한 4개 시도의회 간담회를 열고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개최 등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다짐했다.

충남도의회는 9일 오후 4층 국제회견장에서 '충청권 4개 시도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을 비롯해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세종시의회 상병현 의장, 충북도의회 황영호 의장이 참석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4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난해 11월 개최가 확정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협력과 지원을 다짐했다. 타 지역에

서 국비가 지원되는 대규모 국제종합경기대회가 수차례 열렸던 것과 달리 그동안 충남은 국제스포츠 이벤트에서 소외돼왔다.

이에 따라 4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개최함

으로써 충청권의 위상을 높이고, 메가시티 및 행정수도 완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충청권 의장들은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시설 구축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4개 시도의회는 또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충청권 초광역적 협력 필요성 증대에 따라 충청권 4개 시도는 2020년 메가시티 추진 합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한시기구 신설을 승인했다.

합동추진단은 정부 및 시·도간 협의와 규약 제정, 시·도민 홍보, 광역행정 사무 발굴 등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공동 컨트론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앞으로 시도의회 의장들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 체결을 통한 추진 의지 표명 등 합동추진단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조길연 의장은 "지난해 4개 시도가 합심하여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이뤘고,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로드맵도 마련되었다. 올해는 이 과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기구가 출범하고, 핵심적인 기본 계획들이 수립될 것"이라며 "우리 시도의회가 자주 만나 초당적, 초광역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550만 충청인의 역량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의정토론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온기 넣기 앞장

안장현 의원 의정토론회



충남도의회가 급격하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대책 마련에 관계 전문가와 도민이 한데 머리를 모았다. 도의회는 온양제일호텔에서 아산시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회와 관련해 '아산시 지속가능 발전 방향 모색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토론회는 국립공주대학교 건축학과 오형석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황중석기술사 사무소 황중석 대표, 충남도 김택중 건설정책과장,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김미영 위원장, 디트뉴스24 정치행정부 안성원 차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 좌장인 안장현 의원(아산5)은 "충남도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 속에서 아산시에 개별공장 입지 등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개발 실무종합심

의회' 운영으로 부동산 시장의 한파는 더욱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며 "관련 제도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난개발 방지대책이 또 다른 옥상옥이 된다면, 아산시 개발과 성장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도민과 도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규제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문제점 진단

오인환 의원 의정토론회



충남도의회가 충남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충남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 연구용역'과 관련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공기관 발전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사진)

이번 토론회는 오인환 의원(논산2)이 좌장을, 사회공공연구소 김철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또 충남도 구기선 예산담당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오인환 의원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조직, 기능 분석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용역은 중복·유사 기관 통·폐합, 조직 재설계 등을 통한 예산 절감, 업무와 경영의 효율화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추진 과정

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여론이 팽배한 만큼,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발굴을 위해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 공공기관은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기능을 위해 도가 시행해야 할 업무와 이에 따른 재정을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무분별한 통폐합만이 답은 아니다"라며 "이해당사자와 도민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민원상담소

▶ 지역민원상담소 상담신청

내 집에서 편하게 전화예약, 운영시간 내 방문 시 즉시상담

지역명	상담의원	주소	전화번호	상담사
천안1	홍성현, 신한철, 안중혁, 신순옥, 이현숙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15, 3층	041-554-0008	홍영희
천안2	구형서, 유성재, 김도훈, 오인철, 정병인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45, 401호	041-566-3702	공병찬
천안3	박정수, 김선태, 양경모	천안시 서북구 미라16길 14	041-574-0007	권혁봉
공주	고광철, 박기영, 박미옥	공주시 백미고을길 17-12 2층	041-855-2242	이민영
보령	최광희, 편삼범	보령시 한내로터리길 45, 2층	041-936-5388	김향희
아산1	오안영, 김응규, 박정식	아산시 외암로 1544-3, 2층	041-547-5927	이소영
아산2	조철기, 안장현, 지민규, 이지윤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471-4, 2층	041-546-1101	이영학
서산	김옥수, 이용국, 이연희	서산시 연당로 14, 4층	041-665-1235	김지만
논산	윤기형, 오인환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8, 2층	041-734-0064	이상규

지역명	상담의원	주소	전화번호	상담사
계룡	이재운	계룡시 서금암로 17, 2층	042-840-5719	지혜정
당진	이철수, 이완식, 최창용	당진시 시청2로 18, 2층	041-358-3250	성락준
금산	김석곤, 김복만	금산군 금산읍 후곶천길 53, 2층	041-751-5555	이덕우
부여	김기서, 조길연, 김민수	부여군 부여읍 부장대로 28, 2층	041-835-3330	전영조
서천	전익현, 신영호	서천군 서천로 157-1, 2층	041-952-1650	윤미희
청양	김명숙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4길 37, 301호	041-943-0613	김현락
홍성	이상근, 이종화	홍성군 홍성읍 도청대로 132 C동 201호	041-633-2333	추천중
예산	방한일, 주진하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1길 20, 6층	041-333-9606	박향서
태안	윤희신, 정광섭	태안군 태안읍 후곡로 61(1층)	041-675-0313	김창진

※ 각 지역별 상담소의 위치, 전화번호와 운영시간은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지역민원상담소 - 지역민원상담소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설날은, 우리 농사랑에서

2023 설 선물전

충남 농부들의 정성이 담긴
따뜻한 새해 선물로 마음을 전하세요



농사랑 베스트 선물세트

+ AT할인 20%



아침농원

아침농원배 1호

60,000원
할인가 **49,400원**

배6.2kg(6~9입)



천안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샤인머스켓세트

68,900원
할인가 **61,750원**

샤인머스켓 1수+레드향·한라봉(2과)
+배3과+사과3과

+ AT할인 20%



지애

한우 명절 1호

139,920원
할인가 **115,805원**

국거리+불고기+산적(각 500g)



지애

한산소곡주 1800ml

33,300원
할인가 **28,215원**

1800ml / 2200g



부여대봉곶감영농조합법인

대봉곶감 세트 3호

69,000원
할인가 **60,420원**

20개입(90g이상/개당)



양촌윤가농원

마음곶감 3호(일반)

34,000원
할인가 **32,300원**

60g 20과 1.2kg



농업회사법인(주) 연스토리

연잎갈비

39,000원
할인가 **35,245원**

2kg 1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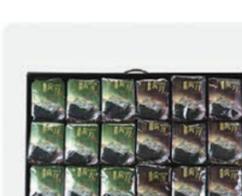


부여축협

굿뜨래 한우 살치살

82,700원
할인가 **78,565원**

600g



광천우리맛김(주)

광천우리식탁 36봉

42,000원
할인가 **28,215원**

36봉 세트(재래 18봉 + 파래 18봉)



삼다리한과

삼다리선물세트 1호

66,000원
할인가 **59,470원**

상품페이지 참조

상품 구매는 농사랑 웹사이트 2023 설기획전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으면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검색창에 "농사랑"을 입력하세요

고객센터 070-5217-9477



농사랑 설 기획전
바로가기 QR코드



농사랑 고객센터
카카오톡 상담하기
바로가기 QR코드